

창살 없는 감옥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에 대한 북한의 극심한 탄압
및 이에 대한 난민과 탈북자의 증언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창살 없는 감옥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에 대한 북한의 극심한 탄압
및 이에 대한 탈북난민과 탈북자의 증언

북한의 종교적 자유에 대한 최신 정보 및
전 북한 보안 요원과의 새로운 인터뷰 자료

2008년 3월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위원

의장

Michael Cromartie

부의장

Preeti D. Bansal

Richard D. Land

Don Argue

Imam Talal Y. Eid

Felice D. Gaer

Leonard A. Leo

Dr. Elizabeth H. Prodromou

Nina Shea

John V. Hanford, III, *직권부*, 비의결권 회원

북한연구팀

원재천, 수석 조사원 겸 취재작가

김병로, 조사관리자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스텝

Patricia Carley, *Acting Deputy Director for Policy*
David Dettoni, *Deputy Director for Outreach*

Judith Ingram, *Director of Communications*
Carmelita Hines, *Director of Administration*

Dwight Bashir, *Senior Policy Analyst*
Elizabeth Cassidy, *International Legal Specialist*
Catherine Cosman, *Senior Policy Analyst*
Deborah DuCre, *Receptionist*
Scott Flipse, *Senior Policy Analyst*
Kody Kness, *Legislative Assistant*
Bridget Kustin, *Communications Specialist*
Mindy Larmore, *East Asia Researcher*
Tiffany Lynch, *Research Assistant*
Jacqueline A. Mitchell, *Executive Assistant*
Danielle Simms, *Assistant to the Deputy Director for Policy*
Stephen R. Snow, *Senior Policy Analyst*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수도
- 지방도
- 소도시, 마을
- 주요 공항
- 국경선
- 경계선
- 지방 경계선
- 고속도로
- 주요 도로

지도 상에 표시된 경계선 명칭 및 용어는 국제연합에 의해 공식 인정된 것이다.

지도 번호 4163 Rev.2 United Nations
2004년 1월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
Cartographic Section

서문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

2005년 12월,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어버이 김일성 수령님 감사합니다: 북한 내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탄압 중대 사례 증언록* (Thank You Father Kim Il Sung: Eyewitness Accounts of Severe Violations of the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in North Korea)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중국을 거쳐 남한으로 탈출한 수많은 탈북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작성된 이 보고서는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 작성된 최초의 보고서로서, 종교적 자유에 관한 북한의 내부 실태 및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이 결과에 대한 매우 귀중한 정보를 담고 있다. 상기한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인터뷰에 응한 북한 주민들은 종교 신도들에 대한 공개 처형 및 중국으로부터 강제 송환된 (특히 기독교로 개종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남한의 선교사 또는 구호요원과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탈북민에 대한 고문과 투옥에 관하여 신빙성 있는 증언을 제공하였다.

그 외에도 북한에서 기독교 및 샤머니즘을 비롯한 전래의 종교 활동이 50년이 넘는 강력한 억압에도 불구하고 존속되고 있다는 정보를 이번의 인터뷰를 통해 얻을 수 있었다. 1945년 이전까지만 해도 이북 지방의 기독교 인구는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정도로 그 수가 많았으며, 천도교 (천리를 따르는 종교)와 불교 또한 많은 신자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남한에서 종교 활동이 번성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김일성은 종교와 관련된 거의 모든 공공 활동을 체계적으로 제거하고 대신 국가가 정한 획일주의적 이데올로기를 강요하였다. 종교 활동이 존속되는 경우는 비밀리에 이루어지거나 국가의 삼엄한 감독

하에서 실시되는 경우 뿐이었다. 위원회의 이번 보고서의 경우, 탈북민들은 평양에 로마 카톨릭 교회 한 곳과 개신교 교회 두 곳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으나, 그 시설은 국가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고 있으며 국제적인 위신과 외화 획득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한때 활발했던 북한의 종교 공동체를 제거한 김일성 일가는 김일성을 찬양하는 사이비종교적 개인숭배 사상을 창안하여 강요하였다. *어버이 김일성 수령님 감사합니다*에는 소위 주체 또는 김일성주의라는 이 국가적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의례, 의무 및 의식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다. 모든 북한 주민은 주간 모임에 참석해야 하고, 김일성 일가의 사진을 집 안에 보관해야 하며,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특정한 처벌이 가해진다. 이번의 인터뷰에서는 악명 높은 “요덕” 수용소에도 특별한 학습실이 있으며, 수감자들은 소름 끼치는 생활 조건 하에서도 특별히 이 곳에 들어갈 때 신을 양말을 따로 보관해야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김일성주의는 단순히 사회 통제의 방편이 아니라 김일성 일가의 정치적 정통성을 위한 이념적 기초이다. 개별적인 종교 활동은 이에 대한 직접적인 정치적 위협으로 간주된다.

*어버이 김일성 수령님 감사합니다*는 정책 입안자, 외교관, 저널리스트, 종교지도자, 북한의 종교적 자유와 인권을 연구하는 학자 등 폭 넓은 범위의 대상에게 북한의 종교적 자유에 관한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귀중한 정보의 원천이다. 이 보고서에 실린 조사 결과는 미 행정부의 고위 관리, 국회의원, 북한인권특별보고관 (UN Special Rapporteur on North Korea)을 비롯한 유엔의 유관기구, 그리고 워싱턴, 뉴욕, 로마 및 서울의

여러 씩크탱크 앞으로 전달되었다. 동 보고서는 한국어로 번역되었으며 위원회의 웹 사이트 http://www.uscirf.gov/countries/region/east_asia/northkorea/NKwitnesses.pdf에 게시되어 있다.

아버이 김일성 수령님 감사합니다의 수정판

위원회는 연구 조사 팀에게 탈북난민들을 대상으로 추가 인터뷰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 팀은 2003-2007년 사이에 중국으로 탈출한 32명의 탈북난민과 과거 8년간 남한으로 귀순한 6명의 전 북한 보안 요원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보안적 인터뷰의 목적은 북한의 종교적 자유에 과연 변화가 있었는지, 첫 번째 보고서에서 밝혀진 정부의 탄압 정책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국경 지역에서 송환된 탈북난민들에 대해 여전히 가혹한 처우가 자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었다.¹ *창살 없는 갑옷*이라는 제목이 붙은 본 보고서는 새로운 탈북난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의 인터뷰 결과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보안상의 위협으로 간주되는 기독교

전 북한 보안 요원들과의 인터뷰는 비밀 종교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북한 경찰이 사용하는 전술에 관한 이례적이고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위원회의 조사 팀은 전 국가안전보위부 (NSA, 즉 보위부) 및 인민보안성 (PSA, 즉 안전부) 간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했으며, 이들의 증언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송환된 탈북난민들이 예외 없이 종교적 접촉 및

¹ 또한 조사원들에게 1) 지리적으로 보다 다변화된 난민 표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함으로써 이전의 조사 결과를 보완할 것, 2) 북한의 불교 활동에 관한 추가 질문을 할 것, 3) 중국으로부터 송환된 난민들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할 것을 요구하였다.

믿음에 대해 강도 높은 심문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의 증언은 송환된 탈북난민, 특히 남한의 인권단체와 접촉했다고 자백하거나 신도가 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대해 고문과 가혹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상기한 전 북한 보안 요원들은 중국과의 접경 지역에서 일어나는 종교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경찰의 활동 증강을 증언하고 있다. 이들은 정보를 수집하고 북한 내에서 새로 신도가 된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 경찰이 “목사”로 행세하거나 가짜 기도 모임을 열어 중국 내의 조선족 교회에 침투한 사례에 대해서도 증언을 하였다. 전 보안 요원들은 “새로이” 부상하는 개신교가 “절대유일의 이념인 김일성주의”에 대한 이념적 경쟁 상대라고 믿었다. 또한 이들은 개신교의 파급을 특별한 보안상의 위협으로 간주하도록 지시를 받았으며 “남한과 미국의 정보기구”가 그러한 확장의 배후에 있다고 교육을 받았다.

전 보안 요원들이 제시한 증언은 북한에서 비밀 종교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가혹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 공식적으로 승인된 정책이며, 따라서 국경 지대에서 중국과의 접촉이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강제 송환된 탈북난민들의 실태

최근에 탈북난민들이 제공한 증언을 종합하면 중국으로부터 송환된 북한 주민들이 실제적인 처벌의 공포에 떨 수밖에 없다는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따라서 1951년 탈북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에 기초하여 탈북난민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중국으로부터의 강제 송환은 특별한 관심의 대상으로 여전히 남아 있으며,

특히 남한 사람 또는 종교 단체와 밀접하고 지속적인 접촉을 가졌던 것으로 의심되는 탈북난민들은 더욱 무거운 처벌의 대상으로 분류된다. 탈북난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송환된 북한 주민들에 대해 중국에서 교단에 가입했는지 내지 종교적 연관 관계가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 반복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탈북난민들은 가혹한 심문, 고문 및 장기적 구금에 처해지며, 특히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기독교로 개종했거나 남한 사람과 접촉했던 경우(이 두 가지 행위는 모두 정치적 범죄로 간주된다) 그 강도가 더욱 높아진다. 이러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가혹한 심문, 고문 및 학대가 자행되고 재판도 없이 장기 구금되거나 투옥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분명 중국으로부터 강제 송환된 탈북난민과 관련된 정책은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탈북난민들은 중국에서 가해진 인신매매 및 기타 형태의 착취 행위를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다. 더욱이 위원회의 두 보고서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중국으로부터 강제 송환된 탈북난민들은 북한에서 장기 구금이나 고문과 같은 일종의 박해를 받고 있으며, 만에 하나 기독교로 개종했거나 남한 교회와 지속적인 연락 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밝혀질 경우 처형될 수도 있다. 국제사회는 힘을 합쳐 중국에 대해 탈북난민의 송환을 중지하도록 압력을 가함으로써 이러한 학대 행위를 저지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며, 중국이 가입되어 있는 탈북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및 1967년 의정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보호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 그러한 행동은 중국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 즉시 시작되어야 한다.

새로 등장했거나 전부터 존속되어 온 종교 활동: 불교, 기독교, 샤머니즘

최근의 인터뷰 결과는 수십 년간의 억압과 반종교 선전과 김일성주의의 파급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불교, 기독교 및 샤머니즘과 같은 전통 신앙이 잔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선로동당에서 급여를 받는 소위 “승려”들에 의해 불교 사원들이 “유적지” 또는 “관광지”로 보존되고 있다는 목격담을 상당히 많이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불교 사원이 존재한다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와 관련하여 인터뷰가 실시된 탈북난민 중 그 곳에서 종교 활동이 벌어지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단 두 명 뿐이었으며, 그들이 목격한 종교 활동도 비밀리에 행한 것이었다.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은 한국의 불교 또한 철저히 억압되었으며, 주로 종교 관련 관광지에서 비밀리에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고작일 정도로 그 존재가 축소되었다.

이번 보고서를 위해 인터뷰에 응한 탈북난민들은 비밀 개신교 활동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러한 정보 중에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종교 활동 및 중국 내의 한국인 교회와 국경에서 접촉함으로써 인해 유입된 “새로운” 종교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국경 지역에서 있었던 비밀 모임과 자신들의 참여 사실에 대해 증언을 하였다. 비록 이번의 인터뷰를 통해 비밀 개신교 활동의 규모와 범위를 파악하기에는 데이터가 부족하지만, 북한 정권은 이를 북한의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점쟁이와 무당을 중심으로 존속 내지는 번성하고 있는 샤머니즘 신앙은 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의 중요한 발견 사항으로 계속 등장하고 있다. 인터뷰에 응한 대부분의 탈북난민들은 자신 또는 가족이 점쟁이를 찾은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계속적으로 금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지역을 중심으로 분명 묵인되고

있으며, 실제로 고위 관리와 군 장교들도 점쟁이를 찾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력을 잃지 않고 있는 김일성주의

이번 보고서를 위해 인터뷰에 응한 탈북난민들은 김일성주의의 위력과 범위에 대한 증언을 계속해서 들려 주고 있다. 김일성 일가에 대한 절대적 숭배 의무는 학교, 미디어 및 직장을 통해 모든 북한 주민에게 변함없이 주입되고 있다. 열성적인 숭배는 승진의 지름길이자 일상 필수품의 배급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길인 반면, 무관심, “불만” 또는 “잘못된 사상”을 가질 경우 심하면 3대에 이르는 일가족이 악명 높은 정치범 강제노동수용소(관리소)에 수감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김일성주의에 반대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으나, 탈북난민들의 새로운 증언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적인 저항, 일부 의식의 느슨한 실행, 개인숭배주의에 대한 불만 등이 광범하게 퍼져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결론

최근의 인터뷰를 통한 증언이 확인해 주듯, 분명 북한의 종교적 자유와 기타 인권 상태는 여전히 세계 최악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자행되는 종교적 자유와 기타 인권에 대한 억압에 대처하기 위한 보다 심도 있고 효과적인 조치가 국제적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급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탈북난민들과 신도들은 북한에서 거주하던 중국과의 접경 지역에서 살든 특히 취약한 처지에 놓여 있다. 행여 국제사회의 관심사가 핵 문제에 지나치게 치중됨으로 인해 북한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축소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보고서의 조사 결과는 이 문제에 관한 쌍무적 외교 협상 및 다자간 협상을 위해 모두 적절하다. 더욱이 이 보고서와 위원회의 이전 보고서를 통해 공개된 증언은 소위 “정치적 범죄”를 이유로 송환된 탈북난민 등에 대해 자행되고 있는 북한의 가혹 행위가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심각한 위반을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토의의 바탕이 된다. 더욱이 북한의 체계적 인권 침해는 주변 지역 및 인접 국가의 정치적 불안정과 더불어 평화에 대한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며, 이에 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²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국제적으로 보장된 사상, 양심 및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어떻게 북한 정부에 의해 위반되고 있는지에 대해 세계의 관심을 끌어 모으기 위해 창립 이래로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 왔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김정일 정권이 주민 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을 철저히 통제하는 방식으로 자행되고 있으며, 국가에 의해 강요된 김일성 일가에 대한 숭배 및 삶의 거의 모든 측면을 파고 드는 광범한 정부의 통제 네트워크에 의해 유지 내지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위원회는 예전부터 북한 정부의 악명 높은 종교의 자유 탄압 행위를 고발하는 동시에 미 국무부에 대해 1998년 국제종교자유법(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에 의거하여 북한을 “요주의 국가”(CPC)로 지정할 것을 권고해 왔다.

위원회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 즉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DPRK의 국경을 넘어 정책 입안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상당한

² 관련 참조 문헌: Vaclav Havel, et al, *Failure to Protect: A Call for the UN Security Council to Act in North Korea*, LA Piper, 2006; David Hawk, *Concentrations of Inhumanity: An Analysis of the Phenomenon of Repression Associated With North Korea's Kwang-li-so Political Penal Labor Camps*, Freedom House, 2007; and *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North Korea: a Case to Answer, a Call to Act*, March 2007.

자원을 투자해 왔다. 북한 주민의 생활에 대한 현실은 아마도 전 정부 관리의 말로써 가장 잘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체제가 여전히

존속되는 유일한 이유는 강력한 감시 체제 때문이다... 북한은 창살 없는 감옥이다.”

목차

제 1 장	서론.....	13
제 2 장	북한의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에 대한 증언.....	22
제 3 장	북한의 종교 활동: 계속되는 억압, 비밀 신앙 생활 및 샤머니즘의 파급.....	34
제 4 장	종교 집단 및 송환된 탈북난민에게 가해지는 박해에 관한 증언.....	44
제 5 장	억압 정책과 그 시행: 전 보안 기구 간부들의 증언.....	52
부록	부록 1: 북한 탈북난민에 대한 인터뷰 방법 및 관련 정보.....	63
	부록 2: 조사원 약력.....	66
	부록 3: 위원회 소개.....	68

18 번 북창 관리소

4 번 및 5 번 구역



주요 지점

1. 불충죄로 현재 3년 징역이 선고된 전 고위 관리용 숙소
2. 봉창강 광산 입구 터널
3. 보불강 (호랑이 강) 광산 입구

위성 영상: Space Imaging Asia

촬영일: 2003년 1월 8일

북한의 18 번 북창 관리소 (수감자 수용소)의 위성 영상 (AP 영상)

서론 (INTRODUCTION)

David Hawk

아버이 김일성 수령님 감사합니다의 저자 겸 수석 조사원

창 살 없는 감옥: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에 대한

북한의 극심한 탄압 및 이에 대한 탈북난민과 탈북자의 증언은 북한에서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가 존중된다고 유엔인권위원회에 대해 강변하고 있는 북한의 주장과 북한 주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있는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엄청난 차이를 측정하고 보고하기 위해 미국종교자유위원회가 벌이고 있는 계속적 노력의 일환이다. 창살 없는 감옥은 위원회가 2005년 11월 발간한 첫 번째 보고서에 이어 공표되는 자료이다. 첫 번째 보고서는 *아버이 김일성 수령님 감사합니다: 북한 내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탄압 중대 사례 증언록*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되었으며, 북한의 종교적 자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아버이 김일성 수령님 감사합니다*는 대한민국 (ROK) 또는 남한에서 살기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DPRK)을 탈출한 전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2004년~2005년 중 실시된 40건의 인터뷰에 기초한 조사 문헌이다. 그 외에도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거나 20세기 말경 평양에 존재했던 종교 단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남한, 유럽 및 북미의 종교인을 대상으로 인터뷰가 실시되었다.³

³ 인터뷰에 응했던 북한 주민 중 누구도 평양(오직 평양에서만)에서 운영되는 3개 (지금은 4개)의 교회에 대해 알지 못했다.

인터뷰 대상자들에게는 북한에서의 종교 활동에 대해 아는 바를 말해 달라는 일련의 질문이 제시되었다. 그 다음 그들이 DPRK에서 알고 있었고 체험했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관한 질문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주체사상” 또는 “김일성주의”라 불리며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들어 한국전쟁 (1950년~1953년) 이전에 한반도에 존재하던 거의 모든 사상 또는 신앙 체계 (불교, 유교, 기독교 등)를 대체한 국가 주도의 전국적인 이념 체계에 대해서도 질문이 제시되었다.⁴

*아버이 김일성 수령님 감사합니다*이 제목은 북한의 젊은이들에게 식사 전 복창하도록 가르치는 문구로부터 인용되었다는 전 북한 주민의 응답과 체험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원시 시대부터 아시아 전역에 존재했던 샤머니즘 또는 정령 숭배 사상의 잔재인 사주 및 점술의 재등장이라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북한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종교활동 또는 신앙의 자유를 가져 본 적이 없었다. 사실 그들은 모든 종교가 엄격히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그 중 일부는 종교인에 대한 공개 처형을 포함하여 금지되거나 불허되는 종교활동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목격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모든

대상 북한 주민 중 누구도 평양(오직 평양에서만)에서 운영되는 3개 (지금은 4개)의 교회에 대해 알지 못했다.

⁴ 북한 주민들은 이를 *유일사상체계*라 부른다. 이 말은 “단일하고 유일한 이데올로기 체계” 또는 “획일적 이데올로기 체계”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인터뷰 대상자가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에 대한 강제적 숭배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개인숭배주의는 주체사상이 명백히 거의 종교적 신앙처럼 변모할 정도로 확대되었으며, 이를 통해 북한 주민의 구원자이자 메시아인 김일성은 기적을 행할 힘을 가진 반 신격화된 지위를 얻었다.

*아버이 김일성 수령님 감사합니다*는 한국전쟁 이후 다른 모든 종교와 신앙 체계가 억압되는 단계를 기술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1970 년대에 극도로 폐쇄적이고 통제된 “종교연맹” 체제가 부활한 사실에 대한 기술을 담고 있다. 그 중에는 DPRK 정부가 북한이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향유하고 있다고 공식 주장할 때 인용하는 현재의 정책과 관행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에 해당하는 이번의 인터뷰는 2007 년 중 약 40 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부분적으로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종교적 자유에 대한 북한의 정책과 관행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위한 기초로 2004 년과 2005 년에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특히 북한의 현대 불교 (조선왕조 이전까지 수백년간 이 나라의 공식 종교였던)에 대한 보완적 정보가 수집되었다. 또한 주체사상과 관련된 북한 주민들의 행동, 주체사상의 선전을 위해 정부가 사용하는 정책, 그리고 허가되지 않는 신앙체계의 재등장 및/또는 종교적 또는 사이비 종교적 활동에 관한 추가 정보가 수집되었다. 또한 중국으로부터 강제 소환된 북한 주민의 처리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가 실시되었는데, 그 이유는 남한 사람을 만났거나 중국에서 개신교도와 접촉한 북한 주민이 DPRK로 강제 송환될 경우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이 이전의 인터뷰를

통해 명백히 밝혀졌기 때문이었다.⁵ 끝으로, *아버이 김일성 수령님 감사합니다*를 저술할 때 북한에서 종교 신도의 처형에 참여했던 전 북한 경찰 간부 한 명에 대해서만 인터뷰가 실시된 것과는 대조적으로,⁶ 이번에는 남한으로 귀순한 전 북한 경찰 및 기타 보안 기구 간부들과 추가적으로 인터뷰를 실시함으로써 DPRK의 종교적 자유에 대한 공식 정책 및 관행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현재의 보고서 *창살 없는 감옥: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에 대한 북한의 극심한 탄압 및 이에 대한 탈북난민과 탈북자의 증언*에는 이러한 추가적 인터뷰에 대한 평가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인터뷰의 주요 요점

이 두 번째 집단의 인터뷰 대상자 중에는 불교 사원의 존속을 증언한 사람들이 전에 비해 더 많았다. 단, 이러한 사람들은 불교와 관련된 활동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문화적 또는 건축학적 유산으로 보존되고 있다. 일부 인터뷰 대상자는 사원에서 “중”(이 용어는 북한에서 통상적으로 “불교승”을 지칭하는 경멸적 속어인 동시에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 존칭으로 사용된다)이 설법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기도 했으나, 대다수의 인터뷰 대상자는 사원 유적지에 있는 사람들이 “관리인”이라고 대답하였다. 일부는 이러한 사원에서 누군가가

⁵ 그러한 접촉은 두 가지 방식으로 발생한다. 많은 북한 주민은 중국에 도착하는 즉시 식량과 기타 지원을 찾아 조선족 교회로 간다. 둘째, 중국으로 탈출하는 많은 북한 주민이 남한의 선교사 또는 종교와 관련된 남한의 비정부 조직 담당자(기독교 및 불교)들의 도움을 받는다. 이들은 식량, 일자리 또는 정치적 망명을 위해 중국으로 탈출하는 북한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북한 접경 지역에 온 사람들이다.

⁶ *아버이 김일성 수령님 감사합니다* 52페이지 참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몰래 불교 형식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보았다는 증언을 하였다.

샤머니즘식 또는 점술의 광범위한 재등장을 확인해 주는 증언을 한 인터뷰 대상자는 불교에 대한 증언보다 더 많았다. 점술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기아 위기 이후 다시 등장하였다. 실질적으로 두 차례의 인터뷰에 모두 응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평양 외부의 거의 모든 곳에서 점쟁이들이 반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많은 응답자가 자기 가족이 점쟁이를 방문한 적이 있으며, 북한의 관리와 경찰들도 그리 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인터뷰 대상자 중 몇 명은 제한적으로 벌어지는 불교 관련 신앙 행위 및 널리 보편화된 샤머니즘적 점술 행위는 모두 미신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되며 이데올로기 체계로서의 김일성주의를 위협하거나 대체할만한 위험 요소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반면 개신교 기독교는 “미 제국주의”와의 역사적 연결 관계 및 38 선 이남의 한국인들과의 연결 관계로 인해 김일성 일가 이데올로기에 대한 직접적인 이념적 도전으로 간주된다. 이 문제는 최근 한국의 어느 역사학자가 말한 바와 같이 “김일성은 실질적으로 신격화되었다”는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한다.⁷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진화했을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개선된 바는 전혀 또는 거의 없다

두 번째 인터뷰를 실시한 목적 중 하나는 첫 번째 인터뷰 결과를 기초로 그동안 상황의 변화 또는 개선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송환된 북한 주민 중 중국에서 종교 또는

종교 신도와 접촉했던 주민들의 처리에 관해).⁸ 그러나 두 번째 인터뷰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최근의 인터뷰 및 관련 데이터와 종합하여 검토해 본 결과, 비록 약간의 상황 변화를 감지할 수는 있을지언정 북한의 종교적 자유 보장을 위한 진전이 있었다는 단서를 찾을 수는 없었다.

1999년, DPRK 정권은 1990년대의 기아 위기 때 수천명의 북한 주민이 식량을 찾아 중국으로 이주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북한 주민들은 이 사태를 “고난의 행군”이라 부른다). 이러한 “식량을 찾아 나선 월경자”는 남한으로의 귀순을 노린 “반역자”와는 구분되었다. 식량을 찾아 국경을 넘은 사람들은 비록 기술적으로 보면 불법을 저지른 것임에도 로동단련대에서 몇 개월간 강제노동을 하는 정도로 제한적인 처벌만을 받았다. 그러나 중국에서 남한 사람 또는 한국계 미국인과 접촉한 사람들은 (그 중 다수는 신앙에 기초한 인간주의적 구호 활동과 관련이 있다) 여전히 훨씬 더 가혹한 처벌 대상인 정치적 범죄자로 간주된다. 북한의 보안 요원들은 송환된 북한 주민이 그러한 만남을 자인하도록 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구타 내지 신체적 고문이 따르는 자세를 포함한 고문 및 강압적 심문 기술을 사용한다. 이번 보고서의 인터뷰 대상자 중 다수는 강요에 못 이겨 남한 사람을 만났거나 그러한 접촉을 통해 종교적 신앙 체계를 받아들였다고 고백한 사람 중 많은 수가 더 심한 처벌을 받았다고 믿고 있었다. 이번 보고서를

⁸ 이에 대한 개선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DPRK를 재차 탈출하기 전에 임신한 여성과 함께 투옥되었던 적이 있는 어느 여성 탈북자를 대상으로 2007년에 중국에서 실시된 인터뷰 결과에 의하면 북한으로 송환되기 전에 중국에서 임신한 여성에 대해 종전에 실시되던 낙태 및 영아 살해 행위가 그들이 알고 있는 한 크게 줄었다고 한다. 비교 자료로는 David Hawk의 *Hidden Gulag: Exposing North Korea's Prison Camps* (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Washington DC 2004, pp. 56-69) 및 Norma Kang Mucio의 *Forced Labour in North Korean Prison Camps* (Anti-Slavery Society, London, 2007, p. 17) 등이 있다.

⁷ Charles Armstrong, *The Koreas*, Routledge, New York, 2007, p. 82.

위해 인터뷰에 응한 전 북한 주민 중 9명은 송환 이후의 심문 과정에서 중국의 기독교 신도와 접촉하였음을 자인한 사람들에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다고 주장한다.⁹

*개신교 기독교는 “미 제국주의”와의 역사적
연결 관계 및*

*38선 이남의 한국인들과의 연결 관계로 인해
김일성 일가 이데올로기에 대한 직접적인 이념적
도전으로 간주된다.*

*이 문제는 최근 한국의 어느 역사학자가 말한
바와 같이*

*“김일성은 실질적으로 신격화되었다”는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중국-북한 국경 주변의 억압적 상태는 인터뷰 대상자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나타나듯이 2개 지역을 중심으로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 북한 경찰 요원들이 이 보고서와 관련하여 증언한 바에 의하면 과거와는 달리 이제 국경 경비요원들도 식량을 찾아 국경을 넘는 사람들 중 다수가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즉시 지원을 구하기 위해 조선족 교회를 찾아 갈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상기한 전 경찰 요원들은 사람들이 단순히 식량이나 거처를 찾아 조선족 교회에 갔다는 것만으로 심한 처벌을 받는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둘째, 이러한 상황 변화와는 별도로 이제는 대다수의 탈북난민들이 중국에서의 종교적 접촉에 대해 자인해서는 안 되며 강압이 가해지더라도 남한의 선교사 또는 구호요원을 만난 사실을 끝까지 부인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 알고 있다고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들은 말하고 있다. 이들은 그러한 자백을 할

경우 처형을 당하거나 관리소 (즉, 정치범 강제수용소)로 보내지는 등 더욱 심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최근에 DPRK를 탈출한 중국의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2006년과 2007년에 실시된 또 다른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와 유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휴먼라이츠워치 (HRW)는 이전에 투옥된 적이 있고 2006년 7-12월 사이에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주민 16명을 인터뷰하였다. 지난 2004년, 남한이 베트남에서 좌초된 400명 이상의 탈북난민들을 서울로 공수하였고 그 후인 2004년 후반에 미국에서 북한인권법 (North Korea Human Rights Act)이 통과되자 DPRK 정부는 그로부터 불과 수 일 이내에 중국으로 탈출하는 모든 월경자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높였다고 HRW는 결론짓고 있다.¹⁰

2007년 1월, Anti-Slavery Society는 탈북난민들을 대상으로 30건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들에 대한 인터뷰는 5명을 제외하고 모두 중국에서 실시되었다). 이들은 이전에 중국으로부터 강제 송환되었고 DPRK로 송환된 즉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또한 동 보고서는 1999년에 북한 당국자가 “단순히 생존을 위해 중국으로 넘어 간 사람들과 보다 정치적인 동기를 가진 사람들 (예: 남한 사람 또는 기독교 신도와 접촉했거나 남한으로 탈출 중에 체포된 경우)을 “명확히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¹⁰ HRW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0년에서 2004년 후반 사이에 [중국에서] 체포된 [북한 주민]들은 남한 주민, 선교사 또는 구호요원과 접촉이 확인되지 않은 한 심문 또는 몇 개월의 노동재교육 시설 입소 이후 석방되었다. 과거에는 그러한 접촉에 대해 더 심한 처벌이 내려졌었다...” 북한의 8개 지역 출신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DPRK 당국으로부터 모든 송환된 월경자가 투옥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HRW는 “중국에서 선교사와 접촉하거나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대한 중대 처벌 원칙은 새로운 정책 하에서도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North Korea: Harsher Policies Against Border-Crossers*, Human Rights Watch, March 2007, pp 4 및 7.

⁹ 아래의 제 3장 참조.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는 노동재교육수용소(노동단련대)나 재교육 수용소(교화소)로 보내졌고, 후자는 정치범 수용소(관리소)에 감금되었다.¹¹

Anti-Slavery Society에 의해 실시된 상기한 인터뷰 자료는 송환된 탈북난민들이 중국에서의 종교적 접촉에 대한 언급을 피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워 알고 있다는 본 보고서의 인터뷰 결과를 재확인해 주고 있다. “많은 인터뷰 대상자들은 중국에서 어느 정도 교회와 접촉을 가진 사실이 있었으나(교회가 공민증이 없는 북한 주민을 지원하는 일에 적극적이므로), 대부분이 심문 과정에서 이 사실을 부인하였다.”¹² 더욱이 많은 북한 주민들이 상기한 바와 같은 접촉 사실을 부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수감자들 또한 그러한 사실을 심문이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부인할 경우 추가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워 알고 있다는 사실이 이러한 인터뷰 결과를 통해 확인되었다.

두 번째로 발간된 위원회의 이번 보고서를 위한 인터뷰에 응한 거의 모든 탈북난민들은 2003 년과 2006 년 사이에 계속해서 교회 참석, 선교사 접촉, 남한 텔레비전 시청 및 남한 사람과의 만남에 대해 자백하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데이터는 종교기관 또는 종교인과 접촉했거나 남한 사람을 만난 북한 주민을 처벌한다는 북한 정권의 정책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해 준다.

DPRK 경찰의 증언: 남한 간첩 조직의 분쇄

현재 남한에서 거주하고 있는 30 여명의 탈북난민들과 가진 인터뷰 이외에도, 남한으로

귀순한 전 북한 경찰 및 기타 보안 요원과의 인터뷰가 여러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전 북한 경찰 요원들은 DPRK에서 종교적 자유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억압되고 있는지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 보고서를 위해 개별적으로 인터뷰에 응한 3 명의 전 보위부(국가 보안기구) 요원은¹³ 중국으로부터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이 수용되고 잔혹하게 심문되는 북한-중국 국경 근처의 심문 및 수용 시설이 보위부의 대적첩보부서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 전직 요원은 자기가 하던 일이 대적첩보공작이었다고 설명한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국가안전보위부는 남한 정보기구가 남한의 기독교 선교사 및 북한 기독교 개종 가능자들을 위장 간첩으로 이용하여 중국-북한 국경 근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간첩조직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송환된 북한 주민 중 남한 사람을 만났거나 조선족 교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안전부의 정규 경찰 요원으로부터 일차적으로 조사를 받고,¹⁴ 이어 보다 철저한 심문을 위해 보위부나 비밀경찰에게로 인계된다. 후자는 중국과의 국경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믿어지는 남한의 간첩 조직을 밝혀 내고 “무력화”하기 위한 공작을 담당하도록 조직된 기구이다.

¹³ 국가안전보위부는 북한의 강력한 정치 경찰의 공식 명칭이며, 일반적으로 북한 사람들은 이를 *보위부*라 부른다. 남한식으로 말하자면 이 용어는 안전보장국(NSA)이라 해석된다. 미국의 독자에게는 국가안전보위부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이 경찰 기구의 임무가 국가안전보장회의(위성정찰 및 무선/전화 도청기구)보다는 FBI 내지는 CIA의 정보 및 대적첩보 활동에 가깝기 때문이다. 북한의 *보위부*는 전국에 위치한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 및 감금/심문 시설을 운영한다.

¹⁴ *안전부*는 북한 사람들이 정규 경찰을 지칭할 때 통상 사용하는 명칭이다. 이 명칭은 *사회안전부*의 일상적 약어이며, 공식 명칭은 1998년에 *인민보안성*으로 변경되었다. 북한 주민들은 계속해서 정치경찰을 *보위부*라는 약어로, 그리고 정규 경찰을 *안전부*라는 약어로 부른다.

¹¹ Norma Kang Mucio, *Forced Labor in North Korea Prison Camps*, Anti-Slavery Society, London, 2007, pp. 3-4.

¹² *Ibid.*, p. 11.

안타깝게도 최근의 데이터는 종교기관 또는

종교인과 접촉했거나

남한 사람을 만난 북한 주민을 처벌한다는 북한

정권의 정책이

어떠한 식으로든 완화되었다는 증거를 거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위한 인터뷰에 응한 보위부 요원 중 두 명은 대적첩보부서 소속이었다. 한편, 세 번째의 전 보위부 요원은 국가안전보위부(State Security Agency)의 정보부서에 속해 있었으며, 남한 내의 북한 간첩 조직을 운영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그 중 한 명은 중국 국경 주변에서 벌어지는 남한 간첩 활동의 역사가 1980-1988년의 전두환 정권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요원은 보위부의 대적첩보요원들이 중국에서 남한의 선교사 및 구호요원에 의해 운영되는 기도회 또는 성서연구모임에 침투하기 위해 기독교 개종자로 행세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람은 그들이 순수하게 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종교 개종자로 위장한 간첩을 색출하려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중국 내에서 식량 또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남한으로 탈주하기 위해 필요한 연결 관계를 구축하려 하는 북한 주민을 체포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증언이 있었다. 이러한 행동은 북한에 대한 반역 행위로 간주된다.

한편 이러한 전 북한 요원들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북한이 남한을 위한 간첩 활동을 미 제국주의에 의한 “문화적 침략”, 즉 “사회주의의 붕괴”를 노린 “유해한 이데올로기”를 북한에 침투시키기 위한 전략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다. 전 보안 요원들은 북한의 관점을 설명하면서 *어버이/김일성 수령님 감사합니다*에 상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정부가 오래 전부터 개신교를 배척해 온 사실을 명시적으로 인용하였으며, 1866년에 비운의 미국 함선 USS 제네럴 셔먼 호가 “은둔의 왕국”을 개방하려 했던 것을 침략의 사례로 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그 배의 승객 중에 선교 임무를 띤 Bible Society의 회원이 한 명 탑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¹⁵ 또한 북한 정부는 그 후에도 개신교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들의 “정신을 중독”시키고¹⁶ “신체 부위를 훔쳐 가기” 위한¹⁷ 시도를 감행했다고 주장한다. 상기한 전 보안 기구 요원 중 한 명은 현재 미국이 [한]반도의 절반을 점령하고 있으며 다른 반 쪽을 집어삼키기 위해 종교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북한 경찰의 견해라는 점을 설명하였다. 또 다른 인터뷰 대상자는 말하기를 종교는 침략의 “전진 방어 기지”이며 종교의 목적은 “사회주의의 붕괴”라고 하였다.

그 외에도 상기한 전 보안 요원들은 북한-중국 국경에서 벌어지는 종교적 자유의 침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주목할 만한 사실을 증언하였다.

- 종교를 믿는 사람에 대한 비밀 처형 사례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직접

¹⁵ *어버이 김일성 수령님 감사합니다* 제 6장과 7장 참조. DPRK 정부는 김일성의 위대한 조부가 이끄는 한국의 애국자들이 USS 제네럴 셔먼호의 선원과 승객을 처형한 것이 미 제국주의가 크게 패한 첫 번째 사건이며 현대 한국사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공식 선언하고 있다.

¹⁶ 이 선교사들은 당시 조선의 평민 자녀들에게 대한 한국어 실용 교육을 소개하였다. 당시의 조선왕조 시절에는 공식 교육이 전통 유교 경전을 한자로 공부한 관료의 자녀들에게로 제한되어 있었다.

¹⁷ 당시 의료선교회에 의해 현대적 수술 기법이 한국에 처음 소개된 후 사람들 사이에서 이러한 루머가 확산되었다.

그러한 처형 장면을 보았다고 주장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아버이 김일성 수령님 감사합니다*에 종교 신도에 대한 공개 처형이 기술되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이러한 처형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시할 수 없었다. (비밀 처형이란 그 본질상 처형 당사자 또는 밀접한 관계에 있던 경찰 소속 요원이 직접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확인이 어려운 문제이다.)

- 전 경찰 요원들은 남한의 선교사들이 중국의 북한 주민들에게 귀국할 때 성경을 북한으로 반입하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은 그 돈과 성경을 받기는 하나 국경을 건너자마자 성경은 버린다고 고백하였다. 이는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북한 경찰에게 체포되었을 때 성경을 그냥 길가에서 발견하여 무엇인지 모른 채 집어들었다고 주장했던 북한 주민의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듯 하다. 종전에는 종교적 문헌을 소지한 것으로 밝혀진 사람에 대해 분명하고도 가혹한 처벌이 내려졌었다.

특정 종교 신도 집단을 단지 종교적 신념을 얻은 시기에 따라 달리 대할 수 있다는 근거는 국제인권조약의 어느 부분에도 없다.

- 전 경찰 요원 중 한 명은 새로이 얻은 신앙 체계를 귀국 후에도 유지하고 있는 북한 주민을 지칭하는 “비밀 신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북한 주민들 (직계 가족이 아닌 한)이 서로 만나 경배를 드리는 “비밀 교회”에 간다는 것은 여전히 너무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 또 다른 전 경찰 요원은 북한 정권이 “오래 된 신도”의 가족 또는 19세기 말엽 및 20세기 초엽에 새로운 신앙 체계를 받아 들인 한국인의 자손과 중국에서의 접촉을 통해 새로운 신앙 체계를 받아 들인 최근의 개종자를 구별한다는 사실을 증언하였다. 이 부분은 탈북난민들 및 *아버이 김일성 수령님 감사합니다*의 다른 인터뷰 대상자가 제시한 증언과 완전히 일치한다.¹⁸

결론: 신앙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

위원회의 첫 번째 보고서인 *아버이 김일성 수령님 감사합니다*에는 DPRK가 존재하기 전부터 종교적 신앙을 얻은 종교 신도 및 그 가족에게 가해지는 종교 활동상의 상당한 제한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또한 동 보고서에는 보다 최근 (주로 중국에 거주하는 도종)에 종교적 신앙 체계를 받아 들인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DRPK 당국이 자행하고 있는 보다 심각한 종교적 자유 및 기타 인권에 대한 침해 행위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창살 없는 감옥*에 요약된 이번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침해 행위는 심각한 종교적 박해 사례에 해당한다. 한마디로 특정 종교 신도 집단을 단지 종교적 신념을 얻은 시기에 따라 달리 대할 수 있다는 근거는 국제인권조약의 어느 부분에도 없다.

중국에서 남한 사람을 만났거나 중국 체류시 신앙 체계를 받아 들인 북한 주민들은 국가, 정치 또는 종교적 기준에 따라 북한 보안 기구에 의해 하나의 집단으로 또는 총괄적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실제로도 그러한 분류가

¹⁸ “해방전 신도”의 자손을 위해 현재 DPRK가 운영 중인 종교 연합에 대한 설명은 *아버이 김일성 수령님 감사합니다* 86-95 페이지를 참조.

이루어지고 있다. 두 차례의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상기한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주민들이 송환 이후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심문받고 종종 고문받을 뿐 아니라 *단련대*(이동식 노동수용소), *집결소*(지방의 수용 시설) 또는 *교화소*(교도소)에서의 강제 노동에 처해진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한편, *관리소*라는 정치범 대상 노동수용소의 혁명구역으로 보내지는 사람들은 언제 “강제실종”될지 모르는 처지가 된다. 더욱이 중국에서 남한 사람을 만났다는 이유로 송환된 북한 주민들은 감옥 또는 노동수용소에서 석방된 후에도 다수가 자신들에게 영구히 “낙인”이 찍히고 그 결과 감시, 차별 및 박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집단 중 다수는 다시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탈출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단, 이번에는 식량 또는 일자리를 찾아서가 아니라 진정한 탈북자로서, 즉 처형에 대한 충분히 근거 있는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이 태어난 국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분명 DPRK 정부의 이러한 모든 행위는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심각한 위반에 해당한다. 중국에서 남한 사람 또는 한국계 미국인을 만났다는 이유로 북한 주민을 처형하거나 중국에서 다른 신앙 체계를 택한 북한 주민을 처벌한다는 것은 집권당으로서 DPRK 정부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및 기타 여러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와 상반된다. 이러한 의무 중에는 인간 삶의 권리, 자유에 대한 권리, 노예로 지내거나 강제노동에 처해짐을 거부할 권리, 고문이나 잔혹행위를 당하지 않을 권리, 비인간적이거나 열악한 처우 또는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 임의로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을 권리, 그리고 구금된

사람들이 인간적이고 존귀한 대우를 받을 권리에 대한 존중이 포함된다. 아울러 상기한 행위는 1991년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¹⁹에 명시된 이산가족상봉 또는 현재의 남북한 화해 및 협력의 분위기에도 위배된다. *아버이 김일성 수령님 감사합니다* 및 *창살 없는 감옥*에 기술된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포함하여 지금까지 명백히 밝혀진 인간의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는 북한의 지도자들을 상대로 향후 개최될 쌍무적 및 다자간 협정의 의제에 명확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¹⁹ 1991년 체결된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기본 합의서.



평양시 김일성 광장 맞은 편에
서 있는 주체사상탑

북한의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에 대한 증언 (TESTIMONY ON THE STATE OF FREEDOM OF RELIGIOUS OR BELIEF IN NORTH KOREA)

I. 종교적 자유의 국가

과거 3 년간 위원회는 탈북난민들을 대상으로 75 건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2003 년 이후에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은 위원회가 이전의 연구 (*아버이 김일성 수령님 감사합니다*)를 위해 실시한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사실, 즉 북한에는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이번의 추가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증언은 국제적으로 보장된 이러한 자유가 실제로 북한에서도 보장되고 있다는 북한 당국자의 주장과 크게 차이가 있다.

종전의 연구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탈북난민들은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없음을 시사하는 3 가지의 상호 연결된 이유를 속속 증언하고 있다. 첫째, 반종교 선전이 교육 체계, 매스미디어 및 직장을 통해 전국 곳곳에서 시행된다. 둘째, 금지된 종교를 믿는 것으로 밝혀진 사람들에 대해 극심한 처벌이 가해진다. 많은 인터뷰 대상자들은 종교 활동에 관여했다가 체포된 사람에 대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듣거나 목격했다고 증언하였다. 셋째, 김일성 일가에 대한 숭배, 즉 “김일성주의”가 공식적인 국가의 이데올로기이자 북한에서 허용되는 유일한 신앙 체계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상기한 인터뷰 대상자들은 김일성주의의 범위와

실천에 관한 많은 양의 세부 정보를 계속적으로 제공하였다.²⁰

전체적으로 탈북난민들의 응답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그들이 북한의 수도인 평양에 머물렀던 적이 있었는지 여부였다.²¹ 평양에 살았던 사람들은 북한의 엘리트로 간주되며 종종 이 나라에서 가장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이다. 평양에 살았던 인터뷰 대상자 중 몇몇은 평양에 기독교, 불교 또는 천도교 교당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모두들 그 사원들이 북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을 위한 전시용이고 “중국과 남한에 있는 것과 같은 진짜 교회가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한 교회에 대해 알고 있는 인터뷰 대상자 중 누구도 예배를 위해 그 곳에 가거나 참석했던 적이 없었다.

평양에서 살았거나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북한의 법률에 권리의 보호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모두들 그 조항이 대외 선전용으로 존재할 뿐이며 국내의 현실을 반영하지는 못하는

²⁰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 및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을 숭배하는 개인 숭배 사이비 종교인 *김일성주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Thank You Father Kim Il Sung: Eyewitness Accounts of Severe Violations of the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in North Korea* 38-42페이지에 제시된 David Hawk의 설명을 참조하도록 한다.

²¹ 북한에서는 여행이 제한되며, 평양에서의 거주는 정치적 엘리트 및 특권층 노동자에게만 허용된다.

것으로 알고 있었다.²² 몇몇 사람들은 자신들이 대학 교수나 상사로부터 그러한 조항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양 모양새를 내기 위해 존재할 뿐이며 정부가 그 법을 따를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탈북난민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대학에서 종교의 자유에 관한 [법률적] 조항에 대해 배웠다. [그러나] 강의를 맡은 교수는 그 조항이 단지 외부인에게 보이기 위한 것일 뿐이며, 우리는 누구도 종교를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다.”

북한의 종교적 자유의 전체적인 실태에 관한 구체적 응답

인터뷰 대상자 1: “북한 법에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을지 모르나, 그것은 단지 슬로건일 뿐이다. 비록 김일성대학에 종교학과가 있기는 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종교라는 개념에 친숙하지 못하다. 신은 공산주의적 기준에 따라 해석된다.”

인터뷰 대상자 3: “종교? 전혀 없다. 종교에 대한 마디만 하더라도 3대가 목숨을 잃을 수 있다. 한국전쟁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 알고 있다. 그러나 종교는 이제 뿌리가 뽑혔다. 북한에서는 오직 [김정일] 한 사람만을 섬길 수 있다.”

인터뷰 대상자 5: 북한의 헌법에는... 신앙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대해 많이 언급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조직의 [정관]에는 “모든 사람은 권리[들]가 있다”고 쓰여 있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다르다. ‘종교’라는 말을 입에 담은 것만으로도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다.”

²² DPRK 헌법 제 67조와 68조에는 “언론의 자유, 집회, 시위 및 결사의 자유,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인터뷰 대상자 9: “비록 현실적으로 [법에 의해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종교는 체제에 대한 위협, 보안 문제의 원천 내지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아편으로 간주된다.”

인터뷰 대상자 16: “[종교에 관한 무언가에 대해] 말을 하는 사람은 즉시 감옥 행 아니면 처형이다. 발언의 자유는 없다. 북한에서는 ‘김정일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즉시 체포된다.”

인터뷰 대상자 20: “누구도 ‘종교’라는 말을 꺼낼 수조차 없다. 북한에는 기독교와 카톨릭이 있다. 그리고 예배당도 있으나, 그건 모두 가짜다. 그러한 건물은 국제사회에 대해 북한에 마치 종교의 자유가 있는 체 하기 위해 존재할 뿐이다. [정부는] 종교나 [독립적] 종교 단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종교가 사회 구조를 갉아 먹을 경우 김정일 정권이 위협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인터뷰 대상자 23: “신에 대한 숭배 또는 [외국의 종교 집단이나 지도자와의 접촉]은 정치적 범죄에 해당한다. 기독교는 허용되지 않는다... 일부는 점쟁이에게로 간다. 북한 정부는 기독교 교회를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기독교 교회가 반국가적 조직이라고 믿는다.”

인터뷰 대상자 24: “신앙이나 종교의 자유는 없다. 북한에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종교를 믿을 수 없다고 교육 내지 학습 받아 왔다. 심지어 중국으로 비즈니스 출장을 가더라도 교회에 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는] 종교에 관여하는 사람은 살아 남을 수 없다고 교육 받았다. 김일성과 김정일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용인되지 않는다. 체포되면 감옥에 가게 된다.”

인터뷰 대상자 27: “헌법에는 종교, 집회 등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전혀 없다. 0.1 퍼센트도 없다. 예를 들면, 최근 송환되는 많은 탈북난민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 만일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잡히면 처벌을 받는다. 북한에서는 뒤만 든든하면 살인을 하고도 빠져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을 갖고 있다가 체포되면 생명을 구할 길이 없다.”

인터뷰 대상자 31: “나는 부모로부터 북한의 종교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또한 우리는 대학에서 종교의 자유에 관한 [북한의 법적] 실태에 대해 배웠다. [그러나] 교수는 우리에게 그것이 단지 외부에 보이기 위한 것이며 우리는 종교를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II. 종교 활동에 대한 인지 또는 참여

북한은 지난 2002년에 유엔이 제기한 DPRK 내부의 종교활동에 관한 질문에 대해 37,000 명의 개인이 어떠한 형태로든 불교, 천도교, 카톨릭 또는 개신교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북한 정부는 평양에 교회와 사원이 세워져 있으며, 그 외에도 전국에 512 개의 “가정예배소”가 존재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탈북난민들은 자신이 자라고 일했던 도시와 마을에서 종교 활동, 종교 지도자 또는 종교 문헌을 목격하거나 체험한 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그리고 종교와 관련된 체험을 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인터뷰 대상자들은 어떻게 해서 종교에 대해 알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전의 인터뷰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탈북난민들은 자신들이 중국으로 망명하기 전까지 종교 활동, 경배 장소, 종교 지도자 또는 종교 문헌을 거의 접한 적이 없다고 답하였다. 종교에 대한 이들의 지식은 매스미디어 또는 학교에서 배운 반종교 선전의 부정적 이미지로부터 형성되었거나 신도의 체포 또는

처형에 대한 목격 또는 소문을 통해 알게 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인터뷰 대상자 중 일부는 역사적으로 보존된 건물로서의 불교 사원을 방문하였거나 평양에서 기독교 교회를 본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같이 그러한 장소가 종교적 활동이 실시되지 않는 “유물” 지역이었거나 북한에 “종교적 자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외국인”용 전시 구조물이었다고 설명하였다. 인터뷰 대상자 중 누구도 기독교 교회 또는 개신교도의 “가정예배소”에 가 본 적이 없었다.

기독교 또는 불교 문헌을 접한 사실이 있는 탈북난민들은 그러한 문헌이 금지되어 있고 위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인터뷰 대상자 중 몇몇은 조부모나 부모가 성서나 기타 종교 문헌을 감춘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또한 많은 탈북난민들이 무속과 관련된 샤머니즘 서적이 널리 퍼져 있으며 암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자료를 소지함으로써 겪어야 할 결과에 대해서는 모두가 잘 알고 있었으며, 만일 종교 서적이 기독교 개신교와 관련되어 있을 경우 소유자 가족의 “3대”가 처형되거나 투옥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전 보안 기구 군관을 포함한 인터뷰 대상자 중 몇몇은 미국이나 남한의 정보기구가 북한에 동요를 일으킬 음모의 일환으로 성서를 배포한다고 믿고 있었다.

최근에 실시된 인터뷰 결과는 북한의 종교적 자유가 전반적으로 별로 개선되지 않았음을 확인해 준다. 그러나 2003년 이후의 탈북난민들로부터 얻은 정보에 의하면 DPRK의 종교 활동에 관하여 4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최근의 인터뷰에서는 종교적 억압에 관하여 보다 지리적으로 다각화된 증언이 수집되었다. 반면, 위원회가 종전에 실시한 인터뷰는 일반적으로 함경북도 지방 출신의 탈북 탈북난민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보다

최근에 실시된 다각적인 인터뷰 결과는 종교적 자유를 억누르기 위해 사용되는 정책이 DPRK 전역에 균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둘째, 종교 서적, 비디오 및 기록의 반입 및 선교사의 활동을 포함한 지속적인 종교 활동이 중국과의 접경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증언이 많이 수집되고 있다. 탈북난민들은 접경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종교 또는 샤머니즘 문헌에 대한 이야기 및 접경 지역이나 지방 지역에서의 일부 비밀 종교활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 준다. 셋째, 이전의 탈북난민들로부터 조사된 바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인터뷰 대상 집단으로부터도 DPRK 내의 많은 지방에 “문화적 유적지”로 보존된 불교 사원과 사찰이 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넷째, 불법적이거나 비밀리에 실시되는 종교 활동 (주로 샤머니즘적 숭배 및 개신교 기독교)이 과거 10년간(특히 1990 년대의 기근 이래로) 증가했다는 증거가 계속 수집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제 3 장을 참조).

“북한에서는 뒤만 든든하면 살인을 하고도 빠져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을 갖고 있다가 체포되면 생명을 구할 길이 없다.”

종교 활동의 인지 및 참여에 관한 구체적 응답

인터뷰 대상자 1: “나는 강원도 남쪽 지방인 원산에서 불교 사원, 기독교 교회 또는 천도교 교당을 본 적이 없다. 우리 모친은 우리 이웃의 [정치] 조직의장이었으며... 나는 모친으로부터

나이 든 [기독교도] 여성이 한 명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인터뷰 대상자 2: “나는 청진에서 불교 사원, 기독교 교회 또는 천도교 교당을 본 적이 없다. 하지만 평양에서는 봉수교회와 칠골교회를 본 적이 있다. 그 교회가 시공 중이었을 때 나는 두 명의 노인이 건설 현장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침내 우리도 북한에 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당시에는 외국인들이 현장을 촬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연행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없다.”

인터뷰 대상자 3: “함경북도 경성에는 불교 사원, 기독교 교회 또는 천도교 교당이 없다. 우리 조모께서는 [성경]을 계속 소지하고 있었다. 가택 검색 시 [종교 서적을] 잘 감추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만일 잘못 들통이라도 나는 날이면 한밤중에 어디로 끌려가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인터뷰 대상자 4: “평양에는 봉수교회, 조선천도교 청우당 및 기타 예배용 건물이 있다. 묘향산의 보현사에 가면 불교 승려들을 볼 수도 있다. 그들은 머리를 깎은 북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결혼을 하고 사원을 관리하고 문화 유적지로서 사찰 [관광을] 안내한다. 그들은 한국의 유교와 불교의 전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인터뷰 대상자 7: “우리 마을에는 불교 사원이 하나 있었다. 우리는 걸어서 [그 곳의] 사찰에 가곤 했다. 나는 여성동맹의 하급 군관이었다. 우리는 정부 또는 당의 정책을 전달하기 위해 필요할 때면 언제나 회의를 가졌다. 우리는 신을 믿거나 기도를 하지 말도록 교육을 받았다. 어느

마을에서는 주차장에서 사람들이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다. 이 신도들은 고발되었고... 80세의 노파 한 명이 체포되었다.”

인터뷰 대상자 9: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함경남도 함흥에서는 어느 누구도 교회나 절에 대한 단어를 입에 올릴 수 없다. 신을 믿는 사람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사람들이다. 나는 미국이 선교사를 먼저 보내 문화적 침략을 하였다고 배웠다. 이에 대한 증거가 황해남도 신천의 어느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인터뷰 대상자 10: “나는 함경북도 회령시 대덕이나 황해남도 사리원에서 종교 시설을 본 적이 없다. 회령시 세천에 살던 44세의 남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은 중국에서 2년간 지냈었다. 그는 그 곳에서 신도가 되었고... [나중에] 예수의 구원을 설교했다고 한다. 그는 [당국에] 그 사실이 보고되자 중국으로 탈출했다. 나는 그가 미쳤고... 악마가 씌웠으며...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다.”

인터뷰 대상자 11: “함경남도 도흥에는 불교 사원이 하나 있다. 나는 [그] 절 말고는 다른 종교 시설을 본 적이 없다.”

인터뷰 대상자 12: “함경남도 함흥에 종교 시설 같은 것은 없다.”

인터뷰 대상자 14: “평안북도 박천에는 오래 된 교회 터가 있다. 건물은 일부만 남아 있으나... [지금은] 가정집이다. 평양에는 봉수교회가 있고 많은 불교 유적지 [사원]이 있다. 승려들도 있다. 그들은 종교활동을 할 수 없지만, 묘향산에 절을 가지고 있다. 나는 중국어로 쓰여진 명당경이라는 불경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중국에서 온 누군가로부터 그걸 받았다. 점술과 공합 책도 있었다... 그러한 서적은 암암리에 거래되는데... 그 중 일부는 매우 고가이다...”

인터뷰 대상자 16: “평양에는 교회와 불교 사원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외국인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시설일 뿐이다. 평양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교회와 절에 가서 기도를 하고 절을 한다. 나는 중국에 오기 전에는 종교 서적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없다.”

인터뷰 대상자 17: “함경북도 무산에는 명승지로서 많은 절이 있다. 나는 승려를 만난 적이 없다. 나는 남한의 영화 및 [비디오를 통해 본] 외국 영화를 통해 크리스마스 휴일과 불교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다. 두만강 근처에 사는 내 친구 중 하나는 성경을 갖고 있었다. 나는 그 내용이 흥미로워 약간 읽어 보았고... 내 친구에게 [그 내용을] 물어 보았다. 그는 그 책을 읽지 말라고 했다. 나는 그 친구를 [당국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인터뷰 대상자 20: 함경북도 회령시에는 오래 된 불교 사원이 있었다. 그 곳에 승려나 신도는 없으나, 국가 유산으로 보존되고 있다. 나는 북한의 많은 곳을 여행하였고... 다른 곳에서도 절을 보았으나, 모두가 역사적 유물일 뿐이다.”

인터뷰 대상자 22: “함경북도 귀주에는 교회나 천도교 교당이 없으나, 불교 사원은 하나 있다. 칠보산의 개보사가 그것이다. 북한에는 많은 절이 있다. 승려는 없으나, 관리원(관리하는 사람)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절에 있다.”

인터뷰 대상자 24: “나는 황해남도 연안에서 종교 활동을 목격한 적이 없다. 나는 중국 장바이에 비즈니스차 갔을 때 성경이 양강도 혜산으로 밀반입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2004년에 중국에 갔을 때에는 중국 내의 북한인 사이에 성경이 유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인터뷰 대상자 26: “함경남도 북청에는 교회나 절이 없다. 그 곳에서 버스로 60 리 (24km)를 가면 대덕산이 있다. 그 산은 정말 유명한 산이며, 그곳에는 역사유적지가 많이 있다. 나는 김일성 항일투쟁 박물관을 방문했고 불교 사원을 보았다.”

III. 김일성주의의 선전 및 실천

위원회가 인터뷰한 모든 탈북난민들은 상세한 증언을 통해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과 친애하는 김정일을 둘러싼 사이비 개인숭배주의를 확인해 주었다. 그들은 이러한 개인숭배주의가 사람들의 일상 생활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 그리고 강제적인 의식 및 의무에 의문을 품거나 반대할 경우의 처벌에 대해 일관된 증언을 하였다.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반, 김일성은 주체 또는 김일성 혁명사상이라는 “공식 이데올로기”의 구조를 완성하였다. 김일성의 목적은 기존 종교 활동의 억압으로 인해 생긴 영적 및 지적 공백을 메우고 사회주의 국가와 비동맹 국가를 대상으로 자신을 선도적인 혁명적 사고자로 선전한다는 것이었다. 주체사상은 주로 사회주의 혁명 및 사회주의 건설의 이론에 기초한 사상체계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와 1980년대 들어 주체 철학은 김일성과 그 가족의 반신격화에 기초한 매우 정교하고 구조화된 신앙체계로 변화하였다. “김일성주의”라는 용어는 김정일 자신이 만들어 냈으며, 그 외에도 많은 요구사항과 의식의 제정을 주관하였다.²³ 아울러 김정일 자신도 1990년 초반 정권을 잡으면서 존경 받는 혁명영웅의 전당에 올랐다.

²³ 주체사상이 정통 맑스 이론으로부터 김일성주의라 불리는 사이비적 개인숭배주의로 전환된 과정에 대한 보다 광범한 설명은 David Hawk의 *Thank You Father Kim Il Sung* 78-85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한다.

위원회의 이전 연구를 통해서도 설명되었듯이, 김일성주의는 정교한 신앙체계 내지 사회통제체제로 발전하였다. 이 체제는 어린이가 “김일성 아버지 감사합니다”를 말하는 법을 배우면서 시작되고, 성장한 후에도 작업장이나 사원 유형의 건물에서 열리는 소위 “김일성혁명사상연구실”, “학습실” 또는 “연구실”이라는 지속적이고 강제적인 성인 교육 과정을 통해 계속 주입된다. 그러한 시설은 모든 지방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기구는 종종 가장 눈에 띄고 잘 관리된 건물을 차지하고 있다.²⁴ 인터뷰 대상자들은 주간 회의 이외에도 학생, 근로자 및 여성의 모임인 “생활총화” 및 연구 모임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일부 지역의 경우,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일가에 대한 연구와 숭배를 위해 이러한 회의에 매 주 참석해야 한다.

최근에 실시된 탈북난민 대상 인터뷰 결과는 김일성주의의 선전, 의무, 범위 및 강도에 대한 더 광범한 정보를 제공한다. 탈북난민들은 모든 가정, 사무실, 학교, 공공 장소 및 “가장 깊은 터널”에까지 김일성 일가의 초상화 (어떤 경우에는 김정일의 모친인 김정숙의 초상까지)를 걸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몇몇은 김일성의 초상이 담긴 핀과 배지를 항상 정해진 방식으로 착용해야 할 의무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탈북난민들이 제공한 정보 중 재미있는 것은 김일성 일가의 초상화를 걸어 두어야 한다는 북한 주민들의 의무 (초상화 정성사업)를 집행하기 위해 조직된 위원회가 북한 내에 있다는 사실이다. 이 위원회는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초상화의 적절한 유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이나 직장에 벌금을 부과하는 임무를

²⁴ 김일성주의의 범위와 의무에 대한 증언은 이전에 인터뷰가 실시된 탈북자의 증언과 유사하다. *Thank You Father Kim Il Sung* 38-42페이지 참조.

수행한다. 초상화 게시 의무를 노골적으로 경시하는 사람은 투옥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정보에 의하면 이 정책의 엄격한 집행 실태가 변질되고 있다. 어느 인터뷰 대상자는 이렇게 말했다. “매일 매 가족이 말끔히 옷을 차려 입고 초상화 앞에 서서 초상화를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2001년 이후로 점검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당국은 점검을 하기 전에 초상화를 청소하라고 미리 공표를 한다.”

최근에 실시된 인터뷰 결과는 1990년대의 기근으로 인해 김일성주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인터뷰에 응한 모든 북한 주민은 이 “공식 이데올로기”의 강력함과 지속성을 증언했으나, 그 중 몇 명은 자발적으로 연구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이 극소수라고 말했으며, 또 다른 몇 명은 개인적 이견 및 무관심, 공공연한 불만, 느슨한 실행 및 심지어 김일성주의의 요구사항을 무시한 사례를 증언하였다.

많은 인터뷰 대상자들은 생필품을 구하기가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김일성 일가가 내려 주신 생필품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하는 역설을 지적하였다.

주간 연구 모임을 조직했던 위원회에서 일했던

어느 탈북난민은 자신이 거주하던 지방의
주민들은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김일성주의의 의무사항에 대해

“열 중 여덟은 불만을 품었다” 고 주장하였다.

새로운 인터뷰 결과는 뒤통수가 따가운 부유한 북한 주민들이 “생활총화”의 주간 참석 의무 중 일부를 무시하거나 “통과”할 수 있다는 흥미로운

증거를 제공하였다.²⁵ 많은 인터뷰 대상자들은 생필품을 구하기가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김일성 일가가 내려 주신 생필품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하는 역설을 지적하였다. 주간 연구 모임을 조직했던 위원회에서 일했던 어느 탈북난민은 자신이 거주하던 지방의 주민들은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김일성주의의 의무사항에 대해 “열 중 여덟은 불만을 품었다”고 주장하였다.

군인과 북한의 정보기관에서 근무했던 탈북난민들은 김일성주의에 대한 지지가 지역에 따라 달랐다고 주장하였다. 어느 인터뷰 대상자의 말에 의하면 “국경 지대와 내륙 지역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국경 지역은 자본주의에 의해 지배되고 있고, 내륙 지역은 사회주의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내륙의 사람들은 여전히 김정일이 최고라고 믿고 있다.” 또 다른 탈북난민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함경북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북한과 중국 사이의 생활수준 차이를 알고 있다... [김일성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평양에 사는 사람들 뿐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증언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을 지탱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무너지고 있다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할만한 일차적 증거는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탈북난민들의 증언으로부터 도출된 정보를 조합해 보면 하나의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그려지며, 이 이데올로기는 광신도들에게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능력 및 불평분자를 손쉽게 식별하고 필요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최소한 그 힘을 유지하고 있다. 어느 탈북난민이 말했듯이, “북한 주민들은 아직도 김정일을 믿고 있다. 그들은 [탈출할 때]

²⁵ 인터뷰 대상자들은 해당 마을, 직장 또는 사회 단위의 모든 구성원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생활총화”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모임에서 모든 사람은 국가 또는 당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도록 자신의 과오를 공개적으로 인정할 것을 강요받는다.

김정일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배가 고파서 달아났던 것이다.”

김일성주의의 실행에 관한 구체적 응답

인터뷰 대상자 1: “우리는 그 곳을 김일성 혁명사상연구소라 부른다. 참석은 의무적이다. 그 연구소에는 김일성의 생애가 초상화와 함께 벽면에 전시되어 있다. 김일성의 생애는 기독교의 성경처럼 장과 절로 구성되어 있다. 김일성, 김정일 및 김정숙에 관한 역사 서적도 구할 수 있다. 벽면의 초상화와 함께 벽의 좌우측에는 김일성 일가의 주된 업적을 설명하는 슬로건과 교육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교사 한 명과 동맹지도원 (학생장) 한 명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들은 회의를 주재하고, 날짜와 참석 인원을 점검하고, 자료를 설명한다. 나는 동맹지도원으로 있었다. [초가 충분히 없었기 때문에 회의를 계속하기 위해] 우리는 입고 있던 옷을 태워야 했다.”

인터뷰 대상자 2: “나는 김일성 혁명사상연구소에 매 주 한 번씩 가곤 했으며 ‘혁명정신’ 과정을 매일 들었다. 참석은... 의무적이다. 이런 종류의 회의는 모든 곳에서 소규모 또는 조직 단위로 열린다. 우리는 종종 우리 돈을 쓰기도 한다. 우리는 방을 붉은 색 벽지와 그림으로 장식한다. 그리고 김일성 일가의 초상을 항상 게시하는데, 이는 의무적이다. 그 장소는 허름한 가옥이든 아니면 터널 안이든 관계 없다. 나는 어렸을 때 국경일이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머리에 리본을 매고 초상화 앞에서 기원의 절을 했다. 비록 아무도 자기를 보고 있지 않지만 가족 구성원들이 그렇게 하라고 강요한다. 그것은 마치 종교와도 같다. 사람들이 김일성의 초상화를 구하기 위해 불타는 집 안이나 홍수가 난 광산으로 뛰어들 때 그들은 ‘위대한 김일성 장군을 위해’라고

슬로건을 외친다. 기적적인 일을 경험할 때면... 경주에서 일등을 하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도 다치지 않은 경우 등... 우리는 ‘김일성 장군과 김정일 장군 덕분’이라 말한다.”

인터뷰 대상자 4: “그 곳은 김일성 혁명사상연구소 또는 혁명역사연구소라 한다. 만일 불참하면... 정치적 처벌이 뒤따른다. 모든 거리와 마을에서 ‘초상화 정성사업’ (김일성 일가의 초상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정책)이 실시된다. 북한 주민들은 초상화 정성사업에 의해 평가된다. 누가 초상화를 사무실에 가장 먼저 거는가? 누가 새해 첫날에 [김일성] 동상 앞에 꽃바구니를 바치는가? 누가 초상휘장 (김일성 배지)을 항상 가슴에 패용함으로써 초상휘장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가?”

인터뷰 대상자 5: 김일성 혁명역사연구소는 중학교, 대학교 및 마을 곳곳에 있다. 참석은 강제적이다... [가지 않으면] 사상을 의심 받게 된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자발적으로 갈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집안에서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인터뷰 대상자 6: “우리는 그 곳을 김일성 혁명사상연구소라 부른다. 그 시설은 [모든 마을의] 가장 좋은 위치에 들어서 있다. 또한 김정숙과 김일성 사적관이 있다. 정해진 시간에 그 곳에 참석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북한 주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이 김일성에게 자신의 생명과 존재에 대해 은혜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교육을 받는다. 그들은 [자신들 먹을 것도 부족한 상황에서] 토끼와 돼지와 쌀을 군대에 기부한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칭송과 영예를 얻고 호의적인 대우를 받는다. 무엇보다도 그런 사람들만이 당에 들어갈 수 있다.”

인터뷰 대상자 7: “김일성 혁명사상연구소라는 곳이 있다. 매 수요일 오후 8-12 시면 꼬박꼬박 그곳에 강제적으로 가야 한다. 북한 주민들은 그곳에 가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생애와] 미덕에 대해 공부한다. 만일 불참할 경우, 그 사람은 ‘자아비판 모임’에서 비판을 받게 된다. 그 [연구소]는 보통 북한에서 가장 좋은 건물에 들어서며 전기도 공급된다. 그 곳을 청소하는 관리인조차 매우 좋은 대우를 받는다. 그곳에 가는 사람들은 충성과 경의를 표하는 뜻에서 말끔히 차려 입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김정일을 믿는다. 그들은 김정일을 배신해서가 아니라 배가 고파 탈출한 것이다.”

인터뷰 대상자 8: “[내가 살았던 곳에도] 김일성 혁명사상연구소라는 곳이 있었다. 그 곳에 가는 모든 사람은 말끔히 차려 입어야 한다. 사람들은 김일성이 어린 시절에 한 일에 대해 교육을 받는다. 또한 작업장이나 학교에서 지정된 사람들이 진달래를 길러 새해 첫 날에 김일성 동상 앞에 가지고 간다. 왜 사람들이 복종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생각하는 일 따위는 누구에게도 허용되지 않는다.”

인터뷰 대상자 9: “김일성 혁명사상연구소라는 곳이 있다. 그 곳에 참석하는 것은 강제적이다. 그곳에 자발적으로 가는 사람은 없다. 그 곳은 종교적 경배의 장소와도 같으며, 김일성 일가의 조상과 그들의 혁명적 행동이 자세히 설명된 그림이 걸려 있으며, 도록판 (그림 아래의 설명)이 있다.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건물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진이 걸려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사람은 불순한 사상을 가진 것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특권이나 지위를 잃는다]. 모든 사람은 김일성 배지를 가슴에 패용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정치적 범죄자가 된다. [김일성주의의 실천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정치적 범죄자가 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은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 연구 모임, 회개 [자아비판] 모임 및 강연, 그리고 각종 기타 모임에 참석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자아비판문을 써서 제출해야 하며, [집단 내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된다.”

인터뷰 대상자 10: 김일성과 김정일의 그림을 벽에 거는 일은 의무 사항이다. 그림을 거는 목적은 김일성과 김정일을 숭배하는 뜻에서이다. [우리는]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해 냈고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을 숭배한다. 만일 불이 나면 사람들은 초상화를 구하기 위해 불 속에 뛰어들어 충성심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행동으로 화상을 입는 사람은 누구나 칭송을 얻게 된다.”

인터뷰 대상자 11: “김일성 혁명사상연구소는 모든 마을에 있다. 나는 의무적으로 그 곳에 간다. 참석하지 않을 경우 올바른 사상을 갖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 [불참은] 1997 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나, 이제는 생활 조건이 악화된 관계로 잘 사는 사람들은 비판을 받지 않는다. 그들은 그냥 통과한다.”

인터뷰 대상자 12: “생활 조건은 힘겹기 그지 없고, 주체 공부를 한다고 쌀이나 다른 무엇이 나오지는 않는다. 관리의 자녀들은 대학에 가기 위해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해야만 노동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우리와 같은 근로자들은 시키기 때문에 공부하러 가야 한다. 우리는 대학에 갈 수 없다. 우리는 6 개월마다 한 번 강연을 듣고 시험을 치른다. 공장에서 우리는 몇 권의 책을 읽고 ‘생활총화’ 때 암송하도록 지시를 받는다. 제정신인 이상 누가 그런 책을 읽겠는가? 우리는 그냥 책에서 한 문장을 골라 암기한 후 책을 전부 다 읽은 양 줄거리를 말한다. 어느 누구도 앉아서 공부하거나 읽지 않는다. 당에 들어가려 결심한

사람들은 돼지를 바치거나 그 외에 자신들이 기르는 동물을 바친다. 몇몇 사람들은 힘들게 일해 번 돈을 기부한다. 그리고 당국자가 ‘우리나라는 사정이 어려우므로 이 나라의 국민은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하면 누군가 자기 재산을 전부 바친다. 만일 누가 ‘나는 너무 살기가 힘이 드는데 어떻게 돈을 낼 수 있는가?’라고 말할 경우, 그 사람이 정말 가난하다면 사람들에게 각자 백원 또는 최소한 50 원을 강제로 걷는다. 어떤 사람들은 충성심을 요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직에 대한 칭송을 요구한다.”

인터뷰 대상자 14: “우리는 그 곳에 자발적으로 가지 않는다. 우리는 끌려간다. 그 곳에서는 매번 똑 같은 것을 공부하고 노래 부르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다. 매일 모든 가족이 단정한 옷을 입고 [김일성 초상화 앞에] 서서 초상화를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 우리는 그런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2000년 이래로 검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은 조사를 나오기 전에 초상화를 청소하도록 미리 알려 준다. 내가 어렸을 때 나는 [그가] ‘태양의 신’이라고 교육 받았기 때문에 나는 태양이 정말 그라고 생각했다. 이제는 학생들조차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 생각한다. 그들은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해 관심이 없다.”

인터뷰 대상자 15: “모두가 살기에 바빴지만 우리는 달리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자아비판 모임에 참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불만이 새어나왔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따르는 체 하지만 열명 중 여덟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은 다음 날 사라진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신이다. 그들은 신성시되며 절대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비록 먹을 것이 하나도 없더라도 일어서서 모든 것이 좋다고 말해야 한다. 우리는 집에 불이 날 경우 다른

재산에 앞서 초상화를 가지고 나오도록 교육받는다.”

인터뷰 대상자 16: “우리는 김일성주의와 주체사상에 대한 교육을 학교에서 강제로 받는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우리는 김일성연구소의 연구 모임에 참석해야 하는 등 직장에서도 강제로 공부를 해야 한다. [초상화를 거는 일은]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강제적이다. 만일 가족의 사진을 걸 경우, 당국에서 내리라는 지시가 하달되며, 김정일의 초상화보다 큰 것은 일절 걸 수 없다. 행사가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김정일 장군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치지만, 집에서 식사 전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드물다.”

인터뷰 대상자 17: “[전에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또는 강제로 ‘김일성 혁명사상연구소 및 사적관’과 같은 곳에 갔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자발적으로 그 곳에 가는 사람은 없다. 그 이유는 지금 사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강제로 가야 한다. 만일 가지 않으면 정치적 범죄자로 처벌을 받는다. 그것은 김일성을 따르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것과도 같다.”

인터뷰 대상자 18: “주당 1 회, 즉 수요일이나 토요일에 군 및 [당] 조직에 의해 세미나 형식의 강연이 열린다. 군 당국은... 몇 번이나 참석했고 몇 번이나 결석했는지를 점검한다. 따르지 않음은 곧 죽음을 의미하므로 따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김일성과 김정일 연구소에 불이 붙었다고 치자. 가장 먼저 보호하고 가지고 나와야 할 대상은 초상화이다. 비상 시 김일성과 관련된 그림과 서적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 구호나무(김일성의 어록이 적힌 나무로서 보통 ‘일제를 무찌르고 이 나라를 자유롭게 하다’ 등의 문구가 쓰여 있다)를 구하는 행동은 충성심으로 간주된다.”

인터뷰 대상자 19: “모든 마을에 김일성연구소가 있다. 그 곳에는 초상화가 걸려 있으며 우리는 매주 한 번 그 곳에 가야 한다. 아마도 사는 것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때로 집 안에 숨어 북한의 정치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등에 대해 말을 하는 것 같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선물을 받으면 초상화 앞에서 절을 하곤 했다. 이제는 절을 하지 않는데 그것은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비록 먹을 것이 하나도 없더라도 일어서서 모든 것이 좋다고 말해야 한다. 우리는 집에 불이 날 경우 다른 재산에 앞서 [김일성 일가의] 초상화를 가지고 나오도록 교육받는다.”

인터뷰 대상자 20: “모든 거리에 ‘주체사상연구소’라는 곳이 있다. 매 주 한 번씩 그 곳에 가야 하며, 불참할 경우 자신이 속한 조직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된다. 만일 세 번 불참하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의해 소환되어 비판을 받고 요주의 목록에 등록된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또 잘못된 진술을 하면 즉시 체포된다. [북한 주민들은] 속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표현을 할 수 없다.”

인터뷰 대상자 21: “우리는 그 곳에 의무적으로 간다. 북한에서는 사는 것만도 힘에 부친다. 그런 마당에 누가 그 곳에 자발적으로 가겠는가?

그것은 모두 강제적이다. 나는 주당 1 회 그 곳에 간다. 출석이 점검된다. 직장에서는 매 토요일마다 생활총화가 열린다. 생활총화는 식량 부족이 극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엄격히 지켜진다.”

인터뷰 대상자 27: “사람들 중 99%는 의무적으로 그 곳에 간다. 사람들은 그 일에 질려 있다. 누가 그 곳에 자발적으로 가겠는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주당 1-2 회 그 곳에 간다. 나처럼 엘리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수도 없이 가야 한다. 예를 들어, 황장엽이나 김만철과 같은 유명인이 남한으로 망명을 하면 그 결과가 우리에게 직접 닥친다. [정부는 말하기를] ‘지식인은 문제의 근원이다. 정부는 그들을 가르치지만 그들은 국가를 배신한다.’라고 한다. 3-4 주간 우리 [엘리트들]은 연구소 내에서 살벌한 비판적 보고서를 써야 하며, 집에 갈 수 없다.”

인터뷰 대상자 30: “학교에서 학생들은 혁명의 역사 및 김일성과 김정일의 어린 시절에 대해 배우며, 졸업 후에도 주당 약 3 회 공부를 계속한다. 화요일에는 강연이 열린다. 금요일에는 [사람들이] 김일성 혁명사상 및 역사 연구소에 가서 어떻게 김정숙을 따를 것인가 등을 공부하고 아울러 새해 인사말 등을 암기한다. 토요일에 우리는 생활을 반성하는 회의를 갖는다. 젊은이들은 김일성 사회주의청년동맹에서 그러한 공부를 하고 우리 (노동자들)는 회사에서 공부를 한다. 농민과 당원들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도 또 다른 장소에서 똑 같은 공부를 한다.”



평양의 아리랑 매스게임

북한의 종교 활동:

계속되는 억압, 비밀 신앙 생활 및 무속신앙의 파급

(RELIGIOUS LIFE IN NORTH KOREA: CONTINUED REPRESSION, CLANDESTINE EXISTENCE, AND THE GROWTH OF SHAMANISM)

위원회의 이전 조사에서도 보고된 바와 같이, 평양의 공식 종교 시설 및 정부의 목록에 등록된 약 500 개의 “가정예배소”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종교 활동은 여전히 불법이다. 이러한 상황은 1950년대부터 시작된 엄격한 종교 억압의 결과이다.²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 기독교 및 전통신앙(점술 및 퇴마술)이 비밀리에 존속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인터뷰 결과는 대체로 북한에서의 종교 생활이 계속해서 억압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증언의 내용 중에는 “문화적 사적지”로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 및 의견상 기능을 하는 불교 사원의 네트워크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 외의 경우, 공개적인 종교 활동은 국가에 의해 통제되는 행위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제한 내지 금지되어 있다. 경제의 붕괴와 1990년대의 기근은 샤머니즘 신앙의 상당한 부활을 불러 왔으며, 특히 지방 지역에서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그 외에도, 중국과의 접경 지역에서는 정권에 의해 명시적으로 금지되고 억압되는 개신교 활동이 비밀리에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북한 정부는 그러한 활동의 존재를 이념과 보안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의 완전한 전모를 확인할 수는 없다.

I. 북한의 불교

*아버이 김일성 수령님 감사합니다*의 초판을 위한 최초의 인터뷰에서는 불교에 관한 정보 또는 불교의 탄압과 존속에 관한 증거를 별로 얻지 못했다. DPRK는 전국에 약 15,000 명의 불교 신도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불교가 어떻게 DPRK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번의 두 번째 인터뷰에서는 북한에 존속하고 있는 불교에 관해 더 많은 정보가 수집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몇 가지 흥미로운 요소를 제시하는 동시에 미래의 연구를 위한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불교 신도는 북한에서 계속 존재를 유지해 왔다. 의견상의 불교 사원 내지 사찰이 관리원(종교적 기능은 수행하지 않음)에 의해

²⁶ 평양의 “가정예배소” 방문 허가를 받았던 남한의 학계 및 구호활동 관계자들은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정부의 목록에 등재된 모든 모임 장소가 실제 운영 중인 종교 시설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하였다.

문화 유적지로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목격담은 매우 빈번히 수집되고 있다. 또한 정부가 고용한 “승려”가 설법을 하고 관광 안내를 하고 외국의 고위 인사를 접견한다는 사실에 관한 목격담도 접수되고 있다. 기독교 교회와는 달리 대부분의 사찰은 지난 50년간 파괴되었으며, 탈북 탈북난민들은 지난 2000년 함경남도 안불 지방의 사원을 정부가 개보수하는 등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불교 사원에 대해 증언을 한 바 있다.

불교 문화가 지상에서 존속되어 온 반면, 이 프로젝트를 위한 인터뷰에 응한 탈북난민들은 “지하”의 불교 활동에 대해 별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 중 몇 명은 이러한 종류의 비공식적 불교 활동이 어느 정도 존재함을 시사하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탈북난민 중 한 명은 2000년인지 2001년인지는 잘 몰라도 함경남도 금야의 안불사 복원 프로젝트 현장에서 예불을 드리고 음식을 바치는 가족을 보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증거가 희소하기는 하지만, 북한에도 불교 활동이 존속되어 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불교 도 및 불교 활동의 존재에 관한 구체적 응답

인터뷰 대상자 1: “북한에는 불교 사원과 승려가 있으며, 승려들은 보통 머리를 기르고 결혼도 한다 [보통 머리를 깎는 불교 승려의 이미지와는 대조적으로]. 예를 들어, 금강산과 묘향산에는 각각 절이 있다. 대학생들은 묘향산으로 현장 학습을 간다. 보현사의 승려는 “중” [불교승을 나타내는 비속어]이라 불린다. 우리 삼촌과 숙모는 불교 신자였다. 그들은 방 하나를 예불을 드리는 장소로 정해 두고 있었다.

인터뷰 대상자 2: “묘향산에는 보현사라는 절이 있다. 내 친구의 부친이 보현사의 주지승이다. 또한 김정일과 김일성의 별장도 묘향산에 있다.

그 절은 복원되었다. 그 곳의 주지는 김일성 및 김정일과 사진을 많이 찍었으며 그를 숭배한다. 그 주지승은 물론 당원이다. 그는 머리를 기르고 양복을 입지만, 외국인 방문객이 찾아 오면 손님을 접견한다. 그는 불교에 대해 많은 공부를 했으나, 그의 사상은 불교가 아니라 김일성주의이다. 승려와 절은 모두 선전 목적으로 존재한다.”

인터뷰 대상자 3: “절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다. 평양에는 비록 외교 비즈니스를 위한 명목상의 존재이기는 하지만 불교 승려들이 있다. 나는 성경을 보았다. 몇 권이 있다. 내가 아는 한 60년대 초까지 성경과 불경이 사람들 사이에서 유통되고 있었다. 그러한 서적은 이후 정부에 의해 완전히 폐기되었다.”

인터뷰 대상자 4: “보현사에 가면 불교 승려를 볼 수 있다. 그들은 머리를 깎은 북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결혼하고 절을 관리하며, 한국의 유교와 불교의 역사를 전파하기보다는 문화유적으로서의 사찰에 대해 설명을 한다. 사람들은 현장 실습과 같은 형태로 그 곳에 간다. 묘향산의 어느 승려는 불교 대신 ‘민설고전학부’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민속 신앙을 공부한 것 같다. 나는 불경과 성경에 대해 들어 보았다. 그러한 경전을 실제 보지는 못했으나 보현사와 봉수교회에 전시되어 있다고 들었다. 북한 정부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김정일의 생일인 4월 15일)와 같은 행사를 위해 자비를 들여 동유럽, 러시아, 중국 및 기타 국가로부터 많은 외국인을 초대한다. 이 행사 도중 보았던 카톨릭 신부가 입은 옷은 너무나도 이국적이어서 눈길이 저절로 끌렸다.”

인터뷰 대상자 7: “나는 북한의 어느 절에 간 적이 있다. 그 곳의 승려는 머리를 깎지 않았으며 강연자였다. 그들은 절을 소개하고 강연을 하였다.

김정일과 김일성도 어느 불교 사원을 방문했었다.”

인터뷰 대상자 11: “승려는 없고, 경비원들 뿐이다. 머리를 깎은 승려는 찾아 볼 수 없다. 함경남도 금야 도흥의 안불사는 건물이 오래 되어 기울기 시작했기 때문에 2000 년인가 2001 년에 개보수되었다. 임시 관리자인 전기기사 한 명이 그 곳에 가서 배선 작업을 했다. 그는 전기를 담당하였는데, 작업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어느 노인 한 명이 그 곳에 아들과 함께 와서 부처가 그려진 그림 앞에 가지고 온 물건을 놓고 예불을 드렸다고 내게 말했다. 그는 매우 용감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그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덮어 주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안에 들어오기를 겁내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절 구역 바깥에서 예불을 드린다는 것이었다. 음식은 잘 차려져 있었다. 우리가 3 개월간 그 곳에 머무는 동안 몇 번인가 좋은 음식이 바쳐졌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대해 들어는 보았으나 어느 누구도 본 적은 없었다. 정부는 그 절이 문화유적지라고 보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다. 이곳 저곳에 불상이 있으나, 그 모두가 정부에 의해 관리되는 것은 아니다. 절 안에 있는 것들만 관리된다.”

인터뷰 대상자 15: “종교는 [외교적 이유로] 상류 사회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로동당 중앙위원회가 남한의 불교 신도 및 방문객 등 외부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사용한다.”

인터뷰 대상자 16: “평양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형식적으로 세워진 절에 가서 기도와 절을 한다. 사원은 외국인만을 위한 것이다. 북한 사람들은 교회나 절에 경배하러 절대 갈 수 없다. 나는 불교 신도를 만난 적이 없다. 예전에는 절이었던 곳도 이제는 기념관이나 역사 유적지이다. 절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인터뷰 대상자 20: “내 친구 한 명은 중국에서 불교를 접하였으며, 북한에 돌아와서는 나에게 함께 절에 가자고 계속 졸라 댔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승려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는 승려란 좋은 말을 하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서 종교를 믿지 않았다.”

인터뷰 대상자 22: “북한에는 남한과 마찬가지로 많은 절이 있다. 그러나 절에 승려는 없고 관리원이라는 사람들만 있다. 나는 [내가 살던 고장 근처에 있는] 칠보산 개심사에서 승려를 본 적이 없다. 그러나 나는 성경과 불경에 대해 들어 보았다. 나는 그러한 책들이 믿을 수 없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 내용을 본 적이 없다.”

인터뷰 대상자 24: “나는 석가탄신일에 대해 상식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었다. [나는] 불교에 관한 내용을 영화에서 보았다. 옛날 영화에는 승려들이 나온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영화에서 비판을 받는다. 종교는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다. [나는] 학교에서 크리스마스나 석가탄신일에 대해 들어 보았다. 그러나 그러한 날들이 어떻게 명절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말해 준 사람은 없었다. 단지 크리스마스는 12 월 25 일고 석가탄신일은 며칠이라고 딱 한 줄만 쓰여 있다. 우리는 자세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개념을 알지 못한다.”

인터뷰 대상자 30: “나는 절에서 불교 서적을 한번 본 적이 있다. 그 책에는 한자와 월이 쓰여진 띠가 있었다. 절은 있으나, 사람들이 그 안에서 믿음을 갖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절에는 책들이 있다. 칠보산에 있는 절에서 본 적이 있다.”

인터뷰 대상자 31: “나는 선생으로부터 불교와 유교의 역사에 대해 들은 적이 있으며, 선생은 그러한 것들이 왕국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말했다. 나는 대사관에서 불교 신도인 여성을 한 명 만났다. 그녀는 중국에 갔을 때 불교 신도를 만나 불교도가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만나고 교회에 가므로, 그것은 특별한 경우였다. 나는 그런 사람을 단 한번 보았을 뿐이다.”

인터뷰 대상자 32: “대학에서 [우리는] 기독교, 불교, 이슬람 및 유교와 같은 주요 종교가 있다는 것을 배웠다. 종교에 관한 공식 과정은 없다. 종교는 철학 수업의 일부로서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상식 차원에서 가르친다.”

II. 비밀 개신교 활동의 존재: 확실치 않은 상황

북한-중국 국경을 따라 활동 중인 선교사들로 인해 북한 내에 비밀 개신교 활동이 상당 부분 활성화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증이 없는 상태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인터뷰가 실시된 탈북난민 중 다섯 명만이 북한에서 비밀 개신교 모임에 참석했다고 증언했으며, 그 외에 두 명이 복음을 전하러 중국에 온 선교사를 만났던 일을 기억하였다. 지하 운동의 존재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의 탈북난민들은 어떠한 종류든 허가되지 않은 비공식 종교 집회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으며, 이어 금지된 종교 활동에 관여한 사람이 체포 및 처형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 보고서를 위해 인터뷰에 응한 전 북한 경찰 간부들은 그들이 목격한 비밀 종교 활동 중 대부분은 “오래된 종교적 전통”을 지키기 위한 가족이나 친척 모임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즉, DPRK 수립 이전부터 존재하던 종교 집회라는 것이다.

비록 탈북난민들을 통해 비밀 종교 활동의 규모 또는 범위를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그 존재는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전의 연구에 비해 이번의 인터뷰에서는 이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수집되었다. 어느 탈북난민은 함경북도 지방에서 개신교 기도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자신도 참석했다는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또 다른 탈북난민은 중국으로부터 송환된 다른 탈북난민들과 함께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탈북난민은 자신에 대한 심문 중 만났던 국경 경비대원의 집에서 모임과 기도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비밀 개신교 활동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지표가 종교 활동에 대한 단속을 책임진 전 보안 요원의 증언으로부터 수집되었다. 즉, “가짜 지하 교회”를 세워 송환된 탈북난민 중 중국에서 개종한 자를 유인하고 중국 내의 종교 집단에 침투한다는 경찰의 작전에 대한 증언이 있었다. 그 외에도 그 보안 요원은 국경 지역에서 송환된 탈북난민들이 중국 내의 남한 또는 외국의 종교 집단과 밀접하고 지속적인 연락을 취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탈북난민들을 심문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인터뷰 결과는 극심한 억압과 끊이지 않는 적발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중심으로, 그리고 중국에서 개신교를 접한 새 개종자들을 중심으로 예전의 전통을 지키기 위한 비밀 개신교 활동이 어느 정도로 북한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믿음을 뒷받침한다.

비밀 종교 활동에 관한 구체적 응답

인터뷰 대상자 5: “2003 년에 ‘유선’이라는 이름의 어느 지하 교회가 발각되었다. 그 곳에서 발견된 14 명의 사람들 중 10 명은 교인이라 했다. 나는 비밀 교회에서 기도를 했던 친구를 하나 알고 있다. 교회 사람들은 한 주에 한 번 기도를 위해

모인다. 1999년 아니면 2000년에 어느 여자가 중국에 가서 돈을 약간 벌어서 북한에 두 권의 성경을 가지고 왔다. 그 여자는 체포되어 국가안전보위부 (NSA)로 보내졌다. 그 후 그녀의 가족은 사라졌다.”

인터뷰 대상자 7: “북한 사람들은 병에 걸렸을 때 김일성이나 김정일보다는 신에게 기도를 한다. 우리 장모님도 그런 사람 중 하나이다.”

인터뷰 대상자 8: “내 여동생/남동생이 2004년에 어머니로부터 들은 내용이 있다. 강냉이가 가게 딸이 중국에서 찬송가를 배워 와서는 부모에게 가르치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가르쳤다는 것이다. 또 그녀는 설교 중에 강냉이를 나눠 주었다. 찬송가를 가르치고 비밀 기도를 한 사람은 조씨라고 했는데, 결국 발각되었다. 그 당시 나 또한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나는 남한으로 가던 도중에 붙잡혔는데, 그 때 하나님을 향해 구원을 호소했다. 온성에서 NSA로부터 심문을 받을 때 내 가슴은 죽음의 공포로 마구 뛰었다.”

인터뷰 대상자 13: “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조직 같은 것은 없다. 한의사인 나는 지방 지역으로 출장을 가는데, 함흥에 있는 친구네 집에 가서 사람들을 치료하던 도중 내 친구가 성경을 보여 주었다 (2004년). 표지가 붉은 책이었다. [내 친구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라고 했다. 그 친구는 초등학교 교사였다. 나는 그 책을 자세히 읽지는 않았다. [내 친구는 내게]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너는] 김일성을 평생 믿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다. 나는 내 친구에게 ‘조심해야 한다. NSA 당국자가 말하기를 성경을 갖고 있거나 본 사람은 자백을 해야 한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그 친구는 성경을 중국에서 친구가 아닌

친척으로부터 얻은 것 같았다. 내 친구는 ‘경찰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나 같은 사람도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인터뷰 대상자 16: “그런 적 없다. 나는 중국에서 지하 교회를 본 적이 없다.”

인터뷰 대상자 19: “회양에서였다. 내 인척이 성경을 전달한 죄로 체포되었으며, 전 가족이 [회양의] 22호 감옥으로 보내졌다. 그들은 종교 간첩으로 분류되었다.”

인터뷰 대상자 20: “내 첫 번째 처의 부모는 종교를 전부부터 가지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기독교도라고 말했다. 내 첫 번째 처의 부친은 그런 얘기를 [사망 전에] 했다. 그녀의 모친도 죽기 전에 똑 같은 말을 했다.”

인터뷰 대상자 23: “회양에서였다. 한씨라는 사람이 1997년에 찬송가를 남편과 나에게 가르쳤다. 남편은 혼자 기도를 했다. 나는 박씨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받은 그 한씨라는 사람과 함께 기도를 했다. [XX]에는 미끼용 지하 교회가 한 곳 있었으며, 남편이 국가안전보위부 (NSA)에 있었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 교회는 NSA가 중국에서 신도가 되어 귀국한 후 기도를 하러 모이는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 만든 것이었다. 신도들이 운영하는 지하 교회는 없었다.”

인터뷰 대상자 25: “내가 북한으로 송환되었을 때, 탈북난민들과 국경 지방 거주민 중 가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가족 단위로 모였으며, 조심스럽게 기도를 했다. 나도 그들과 함께 기도를 했다.”

인터뷰 대상자 27: “지하 교회들이 있다. 나는 술자리에서 고위 당원이었던 친척으로부터 지하

교회와 관련된 간첩 활동에 대해 들었다. [그들은] 3-5 명이 예배를 하기 위해 모인다고 했다.”²⁷

인터뷰 대상자 28: “어느 고위 간부의 집에 갔을 때, 그 곳에 다른 간부가 와 있었으며, 우리는 그 집에서 커튼을 내리고 함께 기도를 했다. 그들은 우리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말했으며, 따라서 나는 창세기 12:2 부터 읽었는데, 그 때 나도 처음으로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또한 그들은 김정일을 위해 기도를 했다. 그들은 북한에 많은 지하 교회가 있다고 내게 말했다. 그들은 같은 기독교도로서 기독교도들을 붙잡는 일이 가슴 아프지만 마음씨 나쁜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신도들을 추적할 경우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므로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그들은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때로 사람들에게 달아나라고 권한다.”²⁸

인터뷰 대상자 29: “[하나님에 대한 숭배]는 친척이나 가족 사이에서만 가능하며, 어느 누구도 일상적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모임을 가질 수 없다. 은덕의 집단농장 부관리자 한 명은 하나님을 믿었고, 지난 1994 년 자기 집에서 비밀리에 광부와 농부를 포함한 20 명의 사람들과 기도를 했다. 하지만 그들은 체포되고 말았다.”

인터뷰 대상자 30: “지하 교회는 중국이 1990 년대에 문을 열면서 시작되었다. 나는 [신도에 대한] 재판과 공개 처형을 목격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처형되지는 않았다. 대신 그들은 유일한 지도 체계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형되었다. 그것은 1991 년의 일이었고, 5 명이 처형되었다. 12 명 중 5 명은

²⁷ 이 응답자의 친척 중 NSA의 고위 간부가 있었으며, 그 사람은 심지어 그녀의 북한 탈출을 돕기까지 했다.

²⁸ 이 응답자가 체포되어 북한의 NSA로 인계되었을 때, 그녀의 취조를 담당 한 NSA의 요원 한 명이 기독교도였으며 그녀가 처형을 피하도록 도움을 제공했다.

종교적 이유로 처형되었고, 나머지는 소를 훔쳤다는 이유로 처형되었다. 공개 처형 고지문은 시장에 게시되었다.”

인터뷰 대상자 34: “지하 교회라기보다는 비밀 신도라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장소 같은 것을 말한다. 하지만 그런 곳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대신 비밀 신도는 존재할 수 있다. 두 명이 모여 손을 합치고 기도를 드리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3 명 이상이 모이면 위험해진다.”

인터뷰 대상자 37: “북한에 지하 교회가 있다는 말이 있으나, 나는 직접 본 적이 없으며, 따라서 믿을 수 없다.”

인터뷰 대상자 38: “만일 지하 교회가 정말 존재한다면 부부와 같은 개인 사이의 일일 것이다.”

III. 샤머니즘과 점술의 광범한 재등장

점쟁이와 무당들이 광범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전통 샤머니즘과 토속 신앙이 존속 내지 번창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전의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가장 놀라운 발견이었다.²⁹ 많은 인터뷰 대상자들은 점술의 재등장이 1990 년대에 발생한 기근 및 사회 조건의 심각한 악화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번 인터뷰에 응한 탈북난민들도 이러한 결론을 확인해 주었으며 샤머니즘 관행의 규모와 범위에 관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탈북난민 중 다수는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또는 혼인 상대자와의 궁합을 보기 위해 점쟁이를 찾았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²⁹ 한국의 샤머니즘에 대한 개략적 설명은 *어버이 김일성 수령님 감사합니다* 제 5장의 56-7페이지 참조.

행동은 불법이므로 점쟁이를 찾는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며 매우 비용이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점을 치는 일은 보통 물그릇 한 개를 제외하고는 전혀 가구가 없는 방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점쟁이는 점을 보러 온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해 많은 것을 물으며, 점괘를 말하기 전에 때로 무언가를 흔들고 알아 들을 수 없는 주문을 외다. 점쟁이에게는 물품(예: 가족이나 쌀) 또는 현금을 지불하는데, 때로 그 액수가 한 달 봉급과 맞먹기도 한다.

이번 보고서를 위해 인터뷰에 응한 탈북난민 중 대부분은 친구나 친척으로부터 옹호하는 점쟁이를 추천 받아 찾아 갔다고 한다. 그 중 몇 명은 고위 관리들도 점쟁이를 찾으며 복비로 큰 돈이 지불된다고 했다. 탈북난민들은 모두 샤머니즘이 불법임을 알고 있었으며, 일부는 샤머니즘을 비판하는 정치 세뇌 과정에 참여했다고 증언하였다. 인터뷰 대상자 중 두 명은 점술 책을 북한의 암시장에서 살 수 있다고 말했다.

탈북난민 중 몇 명은 점쟁이가 체포되고 구금된 경우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러한 관행은 묵인되고 있는데, 그것은 고위 관리와 군 장교들도 점쟁이를 자주 찾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의 인터뷰를 분석하다 보면 종교적 또는 지역적 추세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점쟁이들은 공공 모임이나 공개 광고에 관여되는 일이 없이 개인 대 개인 방식으로 점을 보는 한 묵인되는 것 같다.

점술이 계속해서 번성하고 있고 북한 보안 기구가 샤머니즘 관행을 명백히 용인한다는 사실은 부패, 어느 정도의 영적인 요구 또는 사회적 요구가 정치적 이념보다 우선시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점술은 정부 선전에 의해 비판을 받고 있으며, 점술의 불법성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많은 수의

북한 주민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점쟁이와 상의를 하고 있다. 한편, 점쟁이들은 그 대가로 큰 돈을 버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보안 기구의 간부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체포를 피하는 방식이 보편화되어 있다.

민속 신앙 및 샤머니즘에 관한 구체적 응답

인터뷰 대상자 1: “그렇다. 많이 있다. 점쟁이들은 손금이나 관상을 본다. 그들은 체포될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집에서 점을 본다. 그러나 사람들은 서로서로 점쟁이를 추천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다. 점술은 매우 보편화되어 있다.”

인터뷰 대상자 2: “그렇다. 많이 있다. 기독교도들과는 달리... [점쟁이는] 점을 보다가 잡혀도 조사를 받고 가벼운 처벌에 처해진다.”

인터뷰 대상자 3: “정부는 점술을 통제하려 한다. 그러나 점술은 전통적 관습과도 같아서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점집에] 간다. 우리 조모와 어머니도 점집에 갔다.”

인터뷰 대상자 4: “그렇다. 많이 있다. 그러나 평양에는 드물다. 지방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사람들은 비밀리에 간다.”

인터뷰 대상자 5: “그렇다. 많은 곳에 있다. 점술은 불법이다. 사람들은 비밀리에 그 곳에 간다. 나이 많은 여성들이 주로 딸과 함께 점술 사업을 운영한다. 그들은 남한의 무당과 같다. 사람들은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면 성공할 것 같은가?’ ‘강을 건너 중국으로 간다면 체포되지 않을까?’ ‘이 남자/여자와 같이 살아도 좋겠는가?’ 따위를 묻는다. 우리 어머니도 그 곳에 간다. [어머니는] 작은 탁자에 물 한 그릇을 준비하고 굴뚝 근처에 약간의 음식을 놓은 후 손을 비비며 몰래 기도를

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옷가지나 다른 물건을 가지고 간다.”

인터뷰 대상자 6: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에게 간다. 나 또한 그 중 하나이다. 점쟁이는 내가 남편감을 만날 것이라고 예견했다. 국가에서는 김일정 또는 김정일이 절대 권력자이고 유일한 이념체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 성황당이라는 영화까지 만들었음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점집에 간다. 원래는 점쟁이도 체포되어야 할 대상이다.”

인터뷰 대상자 7: “정부는 점술이나 기타 미신을 믿지 말라고 우리에게 지시한다. 그러나 국민의 80%는 그런 것들을 믿는다. 정부 관리들도 그 곳에 간다. 점쟁이는 나에게 남한으로 가는 도중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대상자 9: “많은 곳에 무당, 점쟁이, 손금 보는 사람 등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곳에 몰래 간다. 발각되는 사람은 정치범으로 몰려 감옥에 갈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관리들도 점쟁이에게 가기 때문에 최근에는 압박이 다소 완화되었다. 그러한 관리들은 점쟁이에게 사업 또는 사업상의 출장에 어려움이 예상되는지 여부를 묻는다. 또한 계약에 대해서도 묻는다. 사람들은 어느 집이 점집인지를 모른다. 낯선 사람이 가면 점쟁이는 [체포될 것을 우려하여] 운세를 봐 주지 않는다. 가격은 고정되어 있는데... 운세를 알고 싶은 사람들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 내 처와 아이들 운세를 알아 보려면 가족 수대로 복비를 지불해야 한다.”

인터뷰 대상자 11: “그렇다. 전국 어디에서나 그러한 곳을 찾을 수 있다.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으나, 친구들의 소개를 통해 암암리에 한다. 당원들도 간다. 그들도 역시 몰래 간다. 나는 사업상 어려움이 있을 때나 향후 계획을 세울 때 몇 번 갔었다.”

인터뷰 대상자 12: “[김일성연구소에서는] 우리에게 점술을 믿지 말라고 한다.”

인터뷰 대상자 13: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많이 있다. 나도 [비즈니스를 위해] 갔었다. 돈을 받는 점쟁이는 정부에서 체포해 간다. 그들은 얼마를 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100 원이든 500 원이든 알아서 [가격을 정한다].”

인터뷰 대상자 14: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 가족도 점 보는 일을 했다. 몇몇 사람들은 무아경에 빠지고 일부는 [책을 사용한다]. 우리 부친은 아픈 사람들을 무료로 고쳐 주었다. 또한 우리는 굶도 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 심지어 경찰, NSA 요원 및 부유한 사람들도 다 안다. 오래 된 점쟁이는 묵인되지만, 젊은 사람들이 드러내 놓고 할 수는 없다. 나는 점술을 한다는 사실을 공공연히 드러내지 않는다. 점쟁이는 [보통 잡혀] 가지 않는다.”

인터뷰 대상자 15: “점쟁이는 비밀리에 점을 봐 준다. 점쟁이는 [누군가가 추천하는 사람에게만] 운세를 봐 준다. 모르는 사람에게에는 점을 쳐 주지 않는다. 많은 당원들도 비밀리에 점을 치러 온다.”

인터뷰 대상자 16: “너무 많은 돈을 받지 않는 한 [그리고 점괘가 틀리지 않는 한] 체포되지는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사기’ 죄로 체포된다.”

인터뷰 대상자 17: “많이 있다. 그들은 다 불법이다. 우리 어머니도 그런 쪽 [즉 점쟁이]였다. 어머니는 이곳 저곳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으며, 나는 내 정체기가 드러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그만 두라고 말씀드렸다. 나는 한 때 점쟁이의 손녀라는 이유로 체포되었고 어머니는 나에게 대해 걱정을 많이 하셨다. 어머니를 다시

만났을 때 나는 여러 차례 어머니를 진정시켜 드려야 했다.”

인터뷰 대상자 18: “점집은 여러 곳에 많이 있다. 사람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그 곳에 자주 간다... 군인들도 간다. 나는 [점쟁이에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묻곤 했다. 국가안전보위부 요원과 경찰들도 자주 가며, 역시 자신의 운세를 알아 보기 위해 간다. 규제가 있으나, (미신이) 너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전부 막기는 어렵다. 불허되는 일이지는 하나, 그냥 놓아 둔다.”

인터뷰 대상자 19: “점술 책이 많이 있다. 과거에는 [점집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나, 북한 경제가 악화되면서 점집이 번성하게 되었다. 이제는 경찰조차 [점쟁이에게] 가서 운세를 물어 본다.”

인터뷰 대상자 20: “우리 회사에서는 주당 1 회 정책 세미나가 열린다. 그 곳에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미신을 믿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 문제에 대한 지침은 매우 분명하게 전달된다.”

인터뷰 대상자 21: “점술 서비스는 자유로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잡히면 처벌을 받는다. 처벌은 그다지 심하지 않다. 금서 몇 권에 대해 자백하는 정도이다.”

인터뷰 대상자 22: “불법이지는 하지만 [조선로동당] 고위 당원들과 그 부인들도 그 곳에 간다. 우리 처도 그 곳에 종종 갔다.”

인터뷰 대상자 24: “점술은 불법이다. 그러나 전에 비해 더 많이 허용되고 있다. 정부는 드러내 놓고 하지 않는 한 통제하지 않는다. 평양에서도 많이 들 한다. 나이 든 사람들이 더 자주 간다. 지위와 권력이 있는 관리들도 많이 간다. 비용은 [남한 돈으로] 30,000 원에서 50,000 원 정도 든다. 우리 어머니도 점에 대해 관심이 많았으므로 우리는

점집에 여러 번 갔었다. 한번은 점쟁이가 우리 집에 오기도 했다.”

인터뷰 대상자 27: “많은 점집이 있다. 새해 첫 날이나 중요한 국경일에 사람들은 유명한 점쟁이를 보러 줄을 서서 기다린다. 점술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점집은 산에 있다. 해가 지면 [고위 관리들이 탄] 많은 차량이 줄을 지어 언덕을 올라간다.”

인터뷰 대상자 28: “나는 결혼할 무렵에 유명한 점쟁이를 보러 함경북도 선봉에 갔다. 복비로는 450 원을 냈다. 당시 쌀 [한 포대] 값이 30 원이었다. 한때는 경찰이 그 곳을 차단하고 [점쟁이를 보러] 오는 사람들을 체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많은 관리들이 그녀를 보러 왔고 그 점쟁이가 [운세를] 잘 보았기 때문에 [경찰은] 그녀를 연행해 가지 않았다.”

인터뷰 대상자 29: “[사람들은] 비밀리에 점을 치나, 점술은 금지 사항이다. 나는 감옥에 간 점쟁이를 한 명 안다.”



평양의 의회 건물 내부

종교 집단 및 송환된 탈북난민에게 가해지는 박해에 관한 증언 (EYEWITNESS ACCOUNTS OF THE PERSECUTION OF MEMBERS OF RELIGIOUS GROUPS AND REPATRIATED REFUGEES)

이 장에는 당과 국가가 후원하는 종교연맹이 아닌 종교 활동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거나 의심되는 사람에게 가해지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인터뷰 대상자의 증언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이 보고서에는 중국에서 종교 신도와 접촉한 북한 주민에게 가해지는 박해 및 처벌에 대한 내용 (잔혹한 심문, 고문, 비인간적 조건에서의 구금, 낙태 및 처형 등)이 포함되어 있다.

탈북난민들은 일체의 종교 활동이 정권에 의해 불법으로 간주되며 신도들이 체포되거나 정치범 수용소 (관리소)에 보내지거나 처형된다는 사실을 일관성 있게 보고하고 있다. 마지막 인터뷰 대상자 집단의 경우와는 달리 이번 보고서를 위한 인터뷰에 응한 탈북난민들은 종교 활동에 관여된 것으로 지목된 사람의 공개 처형에 대한 직접적 증언을 하지 않았다.³⁰ 그 중 몇 명은 종교와는 무관한 범죄자에 대한 공개 처형을 목격했다고 말했는데, 그 중 대부분은 1997-1999 년 기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외에, 2003 년에 청진에서 있었던 공개 처형에 대한 목격담이 남한에서의 판매를 위해 비디오와 DVD로 제작되었다.

³⁰ 이 주제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어버이 김일성 수령님 감사합니다* 제 4장을 참조하도록 한다.

본 보고서를 위한 인터뷰에 응한 탈북난민들은 중국에서 남한의 “목사”를 만났다는 이유로 처형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증거 및 성경을 소지했다는 죄로 체포되거나 사라진 친척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또한 중국에 있을 동안 성경의 많은 부분을 암송한 소년을 공개적으로 모독의 사례가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다. 그 소년과 소년의 가족은 체포된 후 사라졌다. 탈북난민들은 그 외에도 종교 활동에 대한 의혹으로 인해 고문, 학대 및 실종과 같은 잔혹한 처벌에 대한 증거를 계속 제시하였다.

종교적 신념, 입교 또는 종교 활동을 이유로 억압을 받은 개인에 관한 구체적 응답

인터뷰 대상자 19: “[내 친척이] 중국에서 성경을 가지고 와서 친한 친구들에게 주었다. 그러나 곧 소문이 퍼졌고... 경찰이 [그 소문을] 들었다. 그 친구의 가족은 모두 수용소 (관리소)로 보내졌다... 나는 그들이 풀려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인터뷰 대상자 20: “심지어는 청소년(16 세)에 관한 사례도 있다. 그 아이는 내 아이와 같은 나이이다. 당국은 그 아이를 부모다 모인 앞에서 단상에 서게 하였다. 당국은 10 대들이 강을 너무 자주 건너 다니고 신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큰 문제라고 사람들에게 설명하였다. 그곳에서 그 아이의 전 가족은 본보기로 체포되었다. 소문에 의하면 그 아이는 성경 전문을 암기했다고 하며, 그러한 이유로 체포되었다. 그 아이는 중국에 8개월간 머물렀다가 체포되었다. 그리고 종교 때문에 그 아이와 가족은 모두 체포되었다.”

인터뷰 대상자 39: “내가 송환 후 감옥에서 나왔을 때 회령의 어느 강가에서 한 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다. 나는 왜 그 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는지 물어 보았고, 사람들은 “무산에서 온 어느 사람이 남한의 목사가 준 성경을 가지고 왔다. 그러나 그 사람이 북한에 오자마자 친척 중 한 명이 [PSA]에 그 사람을 고발했고, 그 사람은 어제 체포되었는데 내일 처형될 것이다”라고 말했다.³¹”

I. 북한-중국 국경 부근에서의 탈북자 처형

이번 연구를 통해 수집된 증거와 위원회의 이전 연구 결과 그리고 탈북난민의 인터뷰에 기초하여 북한의 상황을 분석한 기타 정평 있는 연구에 의하면³² 중국 내의 북한 주민들이 관련 국제 기준에 따라 탈북난민 지위를 얻어야 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존재한다. 그들은 북한에 머물 경우 처형될 것이라는 실제적인 공포를 안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거나 현지 체제 중인 탈북난민, 즉 박해를 피해 피신한 것은 아닐지라도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처형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중국 정부는 적절한 승인 없이 중국으로 입국하는 북한 주민들을 계속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으며, 이렇게 송환된 주민들은 잔혹한 심문, 구금, 강제노동 및 악명 높은 관리소

(정치범 강제수용소) 수용 등의 처벌에 처해진다. 그러한 행위는 1951년 탈북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33조에 위배된다.

자신이 속한 국가를 떠날 자유는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이다. 또한 북한도 ICCPR의 비준국이다.³³ 그럼에도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나는 일은 북한의 형법에 위배된다. 실제로 1980년대 및 심지어 1990년대 초까지 북한을 떠나는 일은 북한 당국에 의해 남한으로의 고의적인 “망명”으로 간주되었다. 1990년대 후반 북한의 기아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수천명의 북한 주민이 본국의 가족을 먹여 살릴 식량과 일자리를 찾아 중국으로 탈출하였다. 이러한 이주의 결과를 두려워한 중국 정부는 수천명의 북한 주민을 송환하였고, 이러한 탈주자들에게는 북한 당국의 가혹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다. 2000년에 김정일은 식량 또는 생활의 방편을 찾아 중국과의 국경을 넘는 북한 주민들을 “너그럽게” 처리할 것이며 그들에 대한 처벌이 완화될 것이라는 포고문을 선포하였다.³⁴ 그러나 강제 송환되었던 인터뷰 대상자들의 직접적 증언에 의하면 북한 국경 지대의 경찰은 탈북난민들의 이주 동기를 캐 내기 위해 심문 도중 탈북난민들을 일상적으로 고문하고 있다.

³³ 세계인권선언 Art. 1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Art. 12.2.

³⁴ 이 선언이 있기 전까지 강제 송환된 모든 사람에게는 자동적으로 반역죄가 적용되었으며 중죄인 수용소인 교화소수감 또는 정치범 강제노동수용소인 관리소수감 판결이 내려졌다. 선언이 있은 후, 탈북난민들은 국경에서 단순히 경제적 이유로 강을 건넌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일차적 심문(고문이 수반됨)을 받는다. 만일 그렇다면 심문 후 그들은 자기 고장으로 보내지며 약 한 달간의 지방 수용소에 감금되었다가 석방된다. 만일 경비대가 판단하기에 그들이 망명을 위해 나라를 떠났다면 교화소 또는 관리소로 보내진다. 탈북 난민에 대한 북한의 최근 정책 변화에 관한 정보는 *North Korea, Harsher Policies Against Border Crossers*, Human Rights Watch, March 2007을 참조하도록 한다.

³¹ 이 인터뷰 대상자는 김일성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사로청)의 전 이사였으며, 남편은 로동당 간부였다.

³² Norma Kang Mucio의 *Forced Labour in North Korean Prison Camps*, Anti-Slavery Society, London, 2007, 및 *North Korea: Harsher Policies Against Border-Crossers*, Human Rights Watch, March 2007 참조.

만일 탈북자가 남한 사람들과 만났거나 개신교 조직과 지속적인 접촉을 가졌다는 사실이 국경 경비대에게 발각되면 그 사람의 출국은 정치적 범죄로 간주된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송환된 사람들 중 다수가 소위 교화소(중죄인 감옥)라는 강제노동수용소로 보내졌다.

중국 정부는 중국에 허가 없이 입국한 북한 사람들을 북한으로 계속 강제 송환하고 있으며, 그들은 북한에서 잔혹한 심문, 구금 및 강제노동에 처해지고 악명 높은 관리소(정치범 노동수용소)로 인계되어 사라진다. 그러한 행위는 1951년 탈북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33조에 위배된다.

중국에서 피난처를 찾는 북한 주민의 수는 과거 수 년간 기아 상태가 완화되면서 감소하였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의 당국이 하나같이 강제로 저지함에도 불구하고 망명처를 찾아 또는 생존을 위한 경제적 이유로 중국을 찾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길림성 연변자치구의 큰 조선족 공동체 사회 내에 몸을 숨기는데, 그 곳에서 그들은 종교 및 인권 단체 네트워크 내지 조선족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의 상황은 종종 매우 어려우며, 특히 여성에게는 더더욱 그러하다. 탈북난민 중 상당수는 자발적으로 또는 위협에 의해 중국 홀라비나 농촌 지역의 조선족 미혼자들에게 신부로 팔려 가며, 그 곳에서도 중국 경찰이나 북한 NSA 에 노출될 위협에 놓이게 된다. 또한 성적 및 경제적 착취 등 여성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가 만연하고 있다. 그들은

계약되어 있거나 혼인한 경우가 흔하므로 송환되는 북한의 여성의 수는 남성에 비해 적다. 그 외에도 중국 경찰은 간첩 행위의 위협 및 공공의 보안 문제로 인해 북한의 남성을 위협으로 보며, 따라서 남성 탈북자의 체포 및 송환에 훨씬 더 적극적이다.

탈북난민들은 국경 지역의 북한의 경찰이 중국에서 접촉한 사람과 활동에 대해 극심한 취조를 한다는 일관된 증언을 계속 제시하고 있다. 대다수는 송환된 북한 주민 중 많은 수가 국경의 수용소 또는 지방의 감옥(소위 “노동교육소”라는 소규모의 강제노동수용소 포함)으로 보내진다고 증언하고 있다. 송환된 북한 주민 중 심문 후 처벌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이 정치적 불순분자로 “낙인” 찍히며 북한에서는 미래를 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따라서 그들은 때로 남한으로 탈출하는 것을 최종 목표 삼아 중국으로의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탈출을 기도한다.³⁵

북한을 탈출한 탈북난민들의 중국 내 생활에 관한 구체적 응답

인터뷰 대상자 4: “종교 집단은 우리를 북한 [탈북난민들을] 브로커와 연결시켜 줌으로써 남한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 그러나 얼굴이 예쁘면 브로커가 [신부로] 팔아 넘기려 할 수도 있다. 무서운 일이다... 브로커가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탈북자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그와 하루 밤을 지내 준다면 혹시 모를까. 나는 그러한 경우를 당할까 봐 너무

³⁵ 중국 내 북한 난민의 상황 및 송환 이후의 처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Invisible Exodus: North Korean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uman Rights Watch, 2002; *Hidden Gulag*, US Committee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 그리고 보다 최근의 *Acts of Betrayal: The Challenge of Protecting North Koreans in China*, Refugees International, 2005를 참조.

겁이 나서 북한에서 온 어느 남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그러한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

인터뷰 대상자 27: “조선족 교회에서 내가 만났던 대부분의 여성 [탈북난민]은 중국에 친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종류의 경험 [즉 인신매매를] 당했다고 내게 말했다. 중국의 포주는 중국 경찰과 한 패가 되어 사업을 한다. 남성 탈북자의 경우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너무 많은 수가 색출되어 북한으로 송환되기 때문이다. 남성 탈북자의 경우, 신분을 감추고 농장이나 광산 또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한다. 그렇지만 그러한 종류의 일자리를 찾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인터뷰 대상자 28: “[나와 같은] 늙은 중국 남자와 결혼한 많은 젊은 북한 여성들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 아이들을 남겨 두고 도망치는 실정이다.”

인터뷰 대상자 29: “어느 북한 주민이 북한군과 내통하여 5 명의 북한 여성을 매매한 사건을 알고 있다. 중국인들이 국경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성 [탈북난민]은 더 큰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중국 경찰은 남성 탈북자가 중국의 공공 안전을 위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심하게 대한다. 군 복무를 했다는 말만 꺼내도 남성 탈북자에게는 즉시 수갑이 채워진다.”

나는 중국의 어느 산에서 지냈는데, 중국 경찰은 산 속 깊은 곳에서까지 북한 주민을 찾아 낸다. 북한 사람들은 중국어를 하지 못하고 주민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체포된다. [경찰의 활동으로 인해] 심지어 조선족 교회조차 북한 탈북난민을 많이 돕지 못한다. 단지 탈북난민들에게 한두 끼의 식사와 [버스] 차비를 제공할 뿐이며, 숙소를 제공할 수는 없다.”

인터뷰 대상자 30: “북한 여성은 보통 중국인에게 팔려간다. [일단 팔려 간] 여성은 아무데도 가지

못하도록 감시된다. 또한 탈북난민들의 상황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여성이 스스로 팔려 가기를 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어느 20 세의 여성은 70 세의 노인에게 팔려 갔다. 나는 흑룡강성 지방에서 조선족 여성이 7 명의 북한 여성을 인신매매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 일곱 명의 여성은 앉아 있었고 [구매자가] 그 중에서 선택을 했다. [여자들은] 부자에게 팔려 가는 것이 아니라 매우 가난한 사람이나 장애인에게 팔려 간다. 그들은 지방 마을로 보내진다. 가격은 [여성의]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마치 상품을 매매하는 것과도 같다. [북한 여성은] 중국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예처럼 팔려 가고 그렇게 취급된다.”

인터뷰 대상자 31: “나는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을 때 중국에 갔다. 나는 왕청의 어느 한국인 마을에 있었는데 중국 경찰이 밤에 수색을 하러 오는 바람에 불안에 떨어야 했다. 60 명의 사람들이 그 때 잡혔고, 그들은 모두 남한으로 향하고 있던 것이 분명했으므로 북한에서 처형당했다.”

II. 중국으로부터 송환된 북한 탈북난민에 대한 처리

이 보고서를 위해 인터뷰에 응한 북한 주민 중 2/3 이상이 중국으로 건너와 중국 경찰에게 체포되었다가 이후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으며, 그 곳에서 북한 경찰에 의해 구금 및 심문을 당했다. 그들의 증언에 의하면 처벌의 기간과 경중을 결정할 때 종교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분명하다. 거의 모든 인터뷰 대상자는 어떻게 중국으로 넘어갔는지, 국경의 어느 곳을 통과했는지,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중국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관한 예비 질문을 받은 후 구체적으로 (1) 조선족 교회에 갔었는지,³⁶ 그리고

³⁶ 조선족이 거주하는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는 종교 활동이 상당히 널리 파급되어 있다. 도시와 마을에 조선족 교회가 어엿

(2) 중국에서 남한 사람 (국경 지역에서 자선 또는 인도주의적 구호(humanitarian) 활동을 하는 종교단체의 대표자 포함)과 접촉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³⁷ 남한 사람과의 접촉 행위는 중국에서 종교 신도와 밀접하면서도 계속적인 접촉을 갖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범죄로 간주된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다가 2003 년 이후에 다시 탈출한 응답자 중 9 명은 중국에서 기독교도를 만났다는 이유로 인해 자신들에 대한 형벌의 강도가 높아졌다고 주장하였다.³⁸ 그러나 최소한 한 명의 탈북난민은 자신이 네 번 송환되었으며 마지막 심문 당시 자신이 중국에서 성경 공부에 참석했다고 밝혔는데도 고문이 뒤따르지 않아 놀랐다고 증언하였다.³⁹ 이번의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한 가지 증거는 최근의 탈북난민 중 대부분이 남한 사람과의 접촉 또는 종교적 연관성에 대한 자백을 피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점이다. 국경에서의 심문에 관한 정보는 중국 내의 탈북난민들 사이에서 공유된다. 그 외에도, 전 보안 요원들은 조선족 교회가 음식과 지원을 탈북난민들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최근 수 년간은 경찰이 단지 피난처나 식량을 찾아 교회를 찾은 탈북난민들에게 덜 심하게 대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 들어서 있으며,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주민들이 이러한 교회로 와서 도움을 요청한다.

³⁷ 중국 북동부에는 많은 수의 남한 사업가, 학생 및 관광객이 있다. 그 외에도 식량 및/또는 피난처를 찾는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한 바로 그 목적으로 중국 북동부에 진출한 신앙과 관련된 남한의 NGO들이 있다. 또한 조선족 및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주민에게 모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중국의 이 지역으로 온 남한의 선교사들이 있다.

³⁸ 인터뷰 대상자 3, 7, 8, 14, 16, 23, 25, 28, 30, 31.

³⁹ 인터뷰 대상자 29.

중국에서 종교 집단 및 단체와 접촉한 탈북난민의 처리에 관한 인터뷰 대상자들의 구체적 설명 및 응답

3 번 인터뷰 대상자는 자신의 형과 함께 함경북도의 NSA 감옥으로 이송되어 그 곳에서 1 년 3 개월을 보냈다. 그의 형은 감옥에서 자살하였다. 그는 NSA 의 수사관들로부터 중국에서 무엇을 했으며, 남한 사람을 한 번이라도 만났는지, 그리고 교회와 접촉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받았다. 그는 만일 그러한 질문에 “예”라는 답을 한다면 그의 지위가 변하고 달리 처우를 받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는 자신이 감옥에서 겪은 바를 이렇게 설명하였다. “마치 짐승과 같았다. 이름 없는 짐승. 모든 것은 경비원의 기분에 따라 결정되었다. 수감자를 죽여도 그들에게는 해가 없기 때문에... 만일 무언가 갖다 붙일 거리가 있거나 수감자가 무언가 바람직하지 못한 동기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들은 수감자를 구타한다.”

7 번 인터뷰 대상자는 자신이 송환 후 PSA 수용소에서 겪은 바에 대해 증언하였다. 그녀는 왜 중국에 갔으며 교회 또는 선교사와 접촉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녀는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있어야 했으며, 움직이기만 하면 경비원이 구타를 하였다. 경비원은 수감자에게 서로를 때리라고 명령했다. 만일 복종하지 않으면 경비원이 그들을 때렸다. 그녀의 형제도 중국에서 기독교도와 접촉했다고 시인한 후 10 년간 감옥에 갇혔다.

8 번 인터뷰 대상자는 함경북도의 PSA 수용소인 셋별로 보내졌으며 나중에 온성에 있는 NSA 의 감옥으로 이송되었다. 그녀는 자신에 대한 심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였다. “그들은 내가 불교도와 접촉했는지는 묻지 않았으며 대신 기독교도와 접촉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다. 나는 심하게 차이고 얻어 맞았다. 나는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했으며 움직이거나 말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손을 들거나 걷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다. 화장실에 갈 때에도 경비원이 따라 왔다. 그들이 다시 내게 기독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그렇다고 시인했다.”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은 규칙에 따라 앉은 채 어느 누구하고도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었다. 그 곳에는 약 200 명의 수감자가 있었다. 두 개의 구획은 남성용이었다. 한 주먹의 옥수수 가루와 5 숟가락의 묽은 죽이 하루 3 회 배급되었다. [수용소의] 양쪽 측면에는 복도가 있었고, 수감자들이 가운데에 앉을 수 있도록 3 개의 구획이 있었다. 작은 철문이 있는 작은 구획 내에 약 50 명이 수용되어 있었다. 그들은 심장이 나쁜 내가 숨쉬기 힘들어 할 때마다 나를 때렸다.”

16 번 인터뷰 대상자는 함경북도 셋별 PSA 수용소에 3 개월간 수감되었다. 수감자들은 바닥에 앉도록 강요되었으며, 다른 수감자와 말을 하거나 눈을 맞추어서도 안 되었다. 약 20 명의 사람들이 방 안에 수용되어 있었다. 수감자들에게는 10 분간의 운동 시간이 주어졌으나, 곧 이어 바닥으로 되돌아가야 했다. 그들은 옥수수 껍질을 물에 담가 데운 것을 음식으로 주었다. 이 탈북난민은 그들이 자신에게 “성경을 북한으로 반입했다는 것이 밝혀지기만 하면 관리소로 보내 버릴 것이며, 그 곳에 가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직접 말했다고 덧붙였다.

23 번 인터뷰 대상자는 2000 년 이후 3 년간 함흥과 청진의 감옥에 있었으며, 그 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한다. “나는 2000 년 1 월 10 일 처음 수감되었을 때 3 일간 얻어 맞고 아무 것도 먹지 못했다. 그들은 내 머리를 쇠갈고리로 쳤다. 나는 머리를 아래로 하고 다리에 족쇄가 채워진 채 감옥의 철봉에 매달려 있었으며 쇠갈고리로 얻어 맞았다. 내 어깨에도 구타가 가해졌다. 그

결과 모세혈관이 파열되었다. 나는 강제로 앉혀져 오전 5 시부터 오후 10 시까지 하루 종일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으며, 이러한 일이 2 월부터 7 월까지 계속되었다.”

25 번 인터뷰 대상자는 30 세의 여성이었는데, 자신이 2005 년에 북한으로 송환되었으며 중국에서 남한의 종교 집단과 접촉했던 일을 시인한 후 온성에 수감되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녀는 바닥에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어야 했던 것을 제외하고 고문은 없었다고 말했다.

29 번 인터뷰 대상자는 북한을 네 번 탈출하였으며 NSA 정치범 노동수용소에 네 번 수감되었다. 그는 감옥에 들어 서던 순간을 이렇게 설명한다. “온성으로 보내졌을 때 NSA 간부가 내게 ‘저주받을 놈! 네 얼굴을 때려 주마!’라고 말했으며, 내게 찬 물을 끼얹고 발로 찼다. 그 방에는 약 50-60 명의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누울 자리가 없어 우리는 앉은 자세로 잠을 자야 했다. 방 안에는 변기가 하나 뿐이었으므로 실내 전체가 변기통과 같았다. 많은 사람들이 오염된 물로 인해 대장염에 걸려 죽었다. 이도 너무 많았다. 우리는 불어 터진 한 입 분량의 국수를 하루 세 번 먹었다.” 네 번째 송환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중국에서 성경 연구 모임에 들었다고 자백했다. 그는 이렇게 회고한다. “NSA 간부가 내게 ‘너는 타지인이고 아이들이 있다. 그러니까 현명하게 행동해야 한다.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좋다고 인정한다. 그렇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정치범 집단수용소 대신 함흥(단기 수용소)으로 보냈다.”

30 번 인터뷰 대상자는 2003 년 남한에 도착하기까지 세 번 탈출하고 송환되었다. 그녀는 온성에서 자신이 겪은 수감 생활을 이렇게 설명하였다. “작은 방이 있었고 나는 그 곳에 약 8 일간 있었다. 그 작은 방에 약 80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 방 안에서 사람들은] 머리를 숙이고 앉아야 했다. 머리를 들면 얻어 맞는다. 구타를 당한 사람들은 온 몸에 멍이 들어 있었다. 우리는 10 시에 잠자리에 들었고,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정말로 생각했다. 그 방 안에서 아이를

낳은 여자도 한 명 있었으나, 경비원이 아이를 데리고 가 버렸다. 그 방 안에 있던 80 명 중 약 10 명은 신도인 것 같았다. [그들은] 계속 기도를 했다. 그래서 나도 그들과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남북을 분단하고 있는
비무장지대(DMZ)
관문점에서 북한 쪽을
다시 바라보는 모습

억압 정책과 그 시행: 전 보안 기구 간부들의 증언 (THE POLICIES AND PRACTICES OF REPRESSION: TESTIMONIES OF FORMER SECURITY AGENCY OFFICIALS)

본 장에는 국가안전보위부(NSA) 및 Public Security Agency(PSA)를 비롯한 경찰 또는 감시 기구에서 일했던 6 명의 북한 주민과 가진 인터뷰가 실려 있으며, 그 중 한 명은 전 조선로동당 간부였다. 이들에 의해 제공된 정보는 DPRK의 억압 정책과 관행에 관하여 이례적인 사항들을 알려 준다. 그 외에도, 북한의 종교적 자유와 기타 인권에 관하여 더 많은 증거가 식량난과 기타 역경을 피해 북한을 떠난 주민들로부터 제시되었으며, 전 보안 요원들의 증언은 이전의 조사 결과를 상당 부분 보완해 준다.⁴⁰

북한 보안 기구의 역할과 전술은 전체주의 사회의 억압 전술에 정통한 사람들에게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 보안 요원이 제공한 정보는 삼엄한 감시, 자의적 권력, 그리고 북한 주민에게 강요되는 상호 고발 요구를 생생히 보여 준다. 이에 대해 어느 전직 간부는 이렇게 말했다. “북한은 벽 없는 감옥이다... 북한의 체제가 아직 유지되는 이유는 철저한 감시 체제 때문이다.”

전 보안 요원들은 정치적 범죄자를 처형한 사실에 대한 증언을 하였으며, 그 중에는

해머 한 방으로 수감자를 처형할 수 있도록 특별 훈련을 받은 간부들에 대한 증언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한 간부들은 인간백정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고 한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20 년을 일한 어느 요원은 자신이 비밀 처형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했으며, 그 곳에서 “[죄수]는 자신이 묻힐 구덩이를 뚫고 그 다음 백정이 주먹 두 개 정도 크기의 해머로 그를 단 한대 쳤다”고 하였다. 또한 그 전 보안 요원은 정치범과 형사범에 대한 공개 처형이 일반 대중의 거부감 때문에 최근에는 억제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터뷰를 통해 종교 신도를 위협으로 보는 보안 기구의 시각, 종교 활동을 억압하기 위한 보안 기구의 조직 및 훈련, 비밀 활동을 색출하는 요원에 대한 인센티브에 관한 정보가 수집되었다. 전직 요원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 “종교인들은 정치범으로 분류되므로 [진급과 영예] 면에서 큰 보상이 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두 명 이상의 체포 실적을 올리지 못하는 보안 요원들은 “진급할 수 없고 [NSA에서] 쫓겨나야 하므로 매우 절박해진다.” 전 경찰 요원 또한 기도 모임에 침투하거나 “목사”로 가장하기 위하여 종교에 관한 훈련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부는 중국에 가서 개신교 교회에 들어가 그 곳의 탈북난민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자들에 대한

⁴⁰ 네 명의 응답자는 NSA (인터뷰 대상자 33-36) 출신이었고, 두 명은 PSA (인터뷰 대상자 37, 38) 출신이었으며, 한 명은 조선로동당 당원이었다 (인터뷰 대상자 39).

정보를 수집했다는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⁴¹ 또 다른 요원은 NSA가 DPRK로 귀국하기 전에 기독교도가 된 북한 주민을 유인하기 위해 가짜 지하 종교 모임을 구성했던 사례를 설명하였다.

전 보안 요원들은 중국에서 개종한 북한 주민에 의해 북한 내에서 새로이 일어날 수 있는 개신교 활동을 저지하는데 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보안에 대한 위협이자 이념적 위협으로 간주되며, 후자는 모든 요원이 남한과 미국 정보 기구가 개신교의 배후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고 전자는 개신교가 “유일사상체계인 김일성주의”에 대한 “가장 중대한” 도전이기 때문이다. 전 보안 요원 한 명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모든 위협은 종교와 관련되어 있다.”⁴²

전 NSA 요원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

“북한은 식량 부족으로 인해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우리는 남한으로 가거나 종교 신도가 되기 위해 탈출하는 사람들을 목표로 삼는다.”

I. PSA와 NSA의 역할과 활동 방식

NSA는 DPRK 내의 “반동분자” 및 “반정부 세력”을 색출하는 활동의 조정자 역할을 한다. 인터뷰 대상자의 말에 의하면 NSA의 대적첩보부(반탐과)는 정치범, 사상불순자, 외국인 간첩 및 불법 종교 신도를 색출, 체포 및

⁴¹ 국경 지역에 형성된 탈북 난민 공동체에 침투하여 북한 NSA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중국에 잠입한 북한 보안 요원으로부터 수집된 추가적 증언에 대해서는 *Perilous Journeys: The Plight of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and Beyond*, International Crisis Group, October 2006을 참조하도록 한다.

⁴² 인터뷰 대상자 38.

구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만일 어느 개인이 중국 내의 개신교 집단과 밀접하고 지속적인 접촉을 가지고 있거나 정부가 승인한 연합 외부에서 경배를 드리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그 사람의 활동은 정치적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 전 NSA 요원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 “북한은 식량 부족으로 인해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우리는 남한으로 가거나 종교 신도가 되기 위해 탈출하는 사람들을 목표로 삼는다.”⁴³

인민보안성(PSA)의 네트워크는 국가 경찰 조직으로서, 주로 일반 범죄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PSA는 종교 탄압에도 관여하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광범한 정보망을 통해 비밀 종교 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인터뷰 대상자들은 말한다. PSA는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주무 책임 기관이다. PSA 요원은 송환된 탈북난민들을 심문하고 중국에서 기독교도가 되었거나 외국의 인권단체와 접촉했던 사람들을 색출해 낸다. PSA는 보통 “정치범” 혐의자들에 대해 NSA보다 우선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터뷰 대상자의 말에 의하면 그 두 기관은 자원과 특권을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라이벌 관계에 있다.

“반정부” 및 “반동” 분자들을 색출함에 있어 NSA와 PSA는 “정보원” 네트워크와 “주민등록서류”를 활용한다.⁴⁴ 주민등록서류에는 가족관계, 과거의 종교 활동 및 정치적 성향과 같은 정보가 담겨 있다. 모든 북한 주민은 그러한 서류를 가지고 있다. PSA의 주민등록부서는 비밀 조사를 통해 그 서류를 작성한다. 주민등록서류는 불법 종교 활동 가담자들을 포함한 정치범

⁴³ 인터뷰 대상자 34.

⁴⁴ 이 정보를 제공한 인터뷰 대상자는 가족 중에 NSA 요원 한 명 있었으며, 1980년대 후반에 모든 요원이 30명의 정보원을 활용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고 증언하였다.

협의자들을 색출, 감시 및 처벌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요원들은 정보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주민등록서류를 만들고 종교 활동을 비롯한 비밀 활동과 “정치 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교 신도를 포함한 “정치범”을 색출 및 체포하는 요원들에게는 상당한 보상이 주어진다. 보상은 보통 메달, 급여 또는 진급의 형태로 주어진다. 또한 정보원들도 불리한 가족 정보(성분)가 삭제 또는 수정되는 식으로 “보상”을 받으며,⁴⁵ 때로 더 나은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다는 허가가 내려진다.⁴⁶

PSA 및 NSA 의 감시 방법에 관한 구체적 응답

인터뷰 대상자 33: “어느 구역을 담당하는 NSA 간부들은 주민에 대한 모든 공식 서류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은 개개인의 [생활과 가족사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정보원으로부터 알았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체포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이 정보를 사용한다. 우리는 많은 정보원을 두고 있다. 정보원이 되는 사람에게는 위협과 보상이 함께 따른다. 만일 [조사에 실패하거나 NSA 간부가 변절을 하면] 정보원도 처형될 수 있다. 무언가 유용한 것을 찾아 낸 정보원은 금전보다는 영예의 형태로 그 공로에 대한 보상을 받으며, 그 밖에 불리한 가족 배경에 대한 면제를 받거나 더 나은 일자리를 얻거나 심지어는 안전을 위해 평양으로 이사할 수도 있다.

⁴⁵ 성분이라는 용어는 배경 및 정권에 대한 인지도 총성도에 기초하여 사회를 총화하는 DPRK의 체제를 지칭한다. 이에 대한 추가 정보는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연차보고서 2007(2007. 5)의 북한 관련 장을 참조하도록 한다.

⁴⁶ 42번 인터뷰 대상자에 의하면 당원 자격, 대학 입학 및 NSA 등록 등의 기타 보상이 정보원에게 제공되기도 한다.

“일단 간부가 [가난한 가족] 배경 또는 기타 결함이 있는 사람을 하나 고른다. 그 후 그 NSA 간부는 [그 잠재적 정보원을]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마치 죽일 듯이 무자비하게 구타하는데, 어느 누구도 그러한 일을 알지 못하며 신경도 쓰지 않는다. 극심한 구타가 끝나면 그 간부는 그에게 그간 저지른 악행을 종이에 쓸 것을 요구한다. [그가 진술서를 쓰는 동안] 그 간부는 이렇게 소리지른다. [이러이러한 범죄 사실은] 왜 안 쓰고 넘어간 거야?’ 그 간부로부터 PSA 로 넘기겠다는 위협과 함께 3-4년 형을 받을 것이라는 협박을 당한 그 사람은 살려 달라고 애원하며 이렇게 말한다. ‘이번 한 번만 살려 주십시오.’ 그러면 그 간부는 이렇게 말한다. ‘좋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네 목숨을 살려 주마.’”

인터뷰 대상자 34: “우리는 모든 정보원을 활용하여 증거를 확보한 후 정치범을 체포한다. 과거에 서북청년단 (Northwest Youth Association)이라는 집단이 구성된 적이 있었다. 나는 그 집단을 추적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들은 모두 처형되었다. 종교 서적을 소지하거나 신앙을 전파하거나 설교하는 행위는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키려는 기도이므로 존재할 수 없다. [누군가를 체포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이름이 적힌 성경과 같은 오직 한 조각의 증거 뿐이다. 만일 성경이 발견되면 [NSA]는 진짜 소유자가 나타날 때까지 성경을 그 자리에 놓아 둔다.”

인터뷰 대상자 37: “나는 인민보안성 (PSA)의 주민등록부서에 합류하여 비밀 조사를 통해 [공식] 서류를 작성하였다. 그 서류는 아직도 존재하며 [북한 주민의] 인권을 억누르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는 어느 마을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그 마을의 주민들을 비밀리에

조사하였다. 그 당시 나는 사람들이 과거에 무엇을 했고 그 부모가 옛날에 무엇을 했는지를 조사한 후 ‘주민 명부’라는 문서를 작성하였다. 누군가 대학에 가거나 입당을 하거나 일자리를 얻으려 할 경우 [당의] 고위 간부가 먼저 그 문서를 검토하며, 만일 그 사람이 미래에 함께 일할 수 없다는 판정이 그 간부의 손에 의해 내려지면 그 사람은 대학에 갈 수 없다. 북한 주민들은 주민 명부에 적힌 자신의 배경에 따라 분류된다. POW[전쟁포로]의 가족은 43 번으로 분류되며, 탈출했거나 송환된 가족은 49 번으로 분류되고, 전쟁 중이나 독립 전에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적대 집단인 149 번으로 분류된다. 종교인들은 혁명 이후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 가정되기 때문에 분류 코드가 없다. 김씨 성을 가진 어느 여성에게 개신교 전도사인 모친이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당에서 중요한 지위에 있었고 그녀도 당에 들어가고 싶었으나 그녀는 가족 배경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나를 찾아 와 모친에 대한 기록을 삭제해 줄 것을 부탁했고 나는 그녀의 이름을 목록에서 지워 주었다. 어느 사람의 선조가 기독교인이었다는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7 명의 확인이 필요하다.”

인터뷰 대상자 38: “항상 4 개 집단의 감시 팀이 운영되며, 그들은 NSA, PSA, 당 및 인민반 소속이다. [우리는] 인민반과 총정치국에 [특정한] 사람들을 감시하라는 지침을 하달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감시 대상자를 예의 주시하고 방문자 [목록을] 보고하라고 지시한다. 우리는 매 15 일마다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다. 정주, 확산, 운전 및 남신의주에는 많은 종교인들이 있으므로 그 지역의 사람들은 여전히 다른 곳으로 여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그 지역에서는 당원도 뽑지 않는다. 그 곳의 사람들은 평생 [PSA 에 의해] 밀착 감시된다. 만일 어느 정보원이 훌륭한 일을

하면 우리는 때로 PSA 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직장에] ‘이 사람은 자신이 다니는 직장 내의 종교 신도를 색출하였으며 회사에 안주하기가 편치 않으므로 이 사람을 다른 회사로 진출 조치하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식 서신을 보내며, 이러한 식으로 그 사람에게 더 좋은 직장을 알선한다. 이것이 우리가 사람들을 상호 감시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종교 서적을 소지하거나 신앙을 전파하거나 설교하는 행위는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키려는 기도이므로 존재할 수 없다.
[누군가를 체포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이름이 적힌 성경과 같은 오직 한 조각의 증거 뿐이다.
만일 성경이 발견되면 [NSA]는 진짜 소유자가 나타날 때까지 성경을 그 자리에 놓아 둔다.”

“우리가 '이 가족이 조부모 때부터 종교를 믿었다'는 정보를 제공하면 NSA 가 모든 가족을 체포한다.
그러한 이유로 전 가족이 서로를 무서워한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식으로 서로 감시하도록 되어 있다.”

인터뷰 대상자 39: “북한은 창살 없는 감옥이다. 북한의 체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철저한 감시 체제 때문이다. 우리가 ‘이 가족이 조부모 때부터 종교를 믿었다’는 정보를 제공하면 NSA가 모든 가족을 체포한다. 그러한 이유로 전 가족이 서로를 무서워한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식으로 서로 감시하도록 되어 있다. 김일성 사회주의청년동맹 그리고 여맹 등 모든 조직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비밀 종교 활동의 색출을 위한 훈련에 관한 구체적 응답

인터뷰 대상자 34: “북한에는 국가안전보위대학이라는 이름의 학교가 있다. 원칙상 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한 후 입학하여 4-5년간 특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종교 문제에 관한 특별 교육은 없다. 그러나 [일부는] 종교인들을 색출하기 위해 종교에 관한 공부를 한다. NSA에는 모든 언어로 번역된 성경 견본이 있다.”

인터뷰 대상자 35: “김일성대학에 종교 과정이 있고 대부분의 대학원생[또는 종교 전공자]들이 해외 또는 국내의 [종교 집단으로] 간다. 하지만 그들은 대부분 NSA에 의해 채용된다. [때로] NSA는 한 사람을 골라 김일성대학 측에 종교 교육을 의뢰한다. 지금은 신학 과정이 있는데, 그 이유는 북한에 선교사와 목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NSA 간부들 또한 [종교인들을] 심문함으로써 각종 기술과 기법을 배운다. 나를 심문한 간부는 기독교 용어에 대해 알고 있었고... 성경을 읽은 것 같았다. 지난 5월 (2006년) 중국에 갔을 때 나는 NSA 정보원이었던 사람을 만났다. 그는 자신이 NSA의 특별 지침에 따라 종교인들을 색출하도록 교육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눈을 감고 조용히 있거나 명상하는 사람 또는 습관적

애연가 또는 애주가였으나 갑자기 금연 또는 금주를 한 사람 등을 찾아 내라는 임무를 부여 받았다. [그러한 사람들은] 밀착 감시의 대상이 된다.”⁴⁷

인터뷰 대상자 36: “요원들은 국가안전보위대학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보통이나, 때로 교수들이 비밀리에 와서 가르치기도 한다. 요원들에게는 종교를 가지라는 지시가 내려지나, 그것은 적진에 잠입하기 위한 목적에서이다.”⁴⁸

인터뷰 대상자 37: “우리는 ‘종교는 마약이므로 순식간에 퍼질 수 있으며, 러시아의 고르바체프가 몰락한 것도 [그러한 이유], 즉 제국주의가 종교를 통해 침투했기 때문이었다’라고 배운다. 이러한 식으로 [모든 위협은] 종교와 연관된다.”

II. 비밀 종교 활동의 색출: DPRK 보안 기구의 훈련 및 전술

북한의 보안 간부 중 일부는 종교를 이해하고 종교 문헌을 식별하고 비밀 종교 활동 혐의자들을 심문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는다. 그들은 송환된 탈북난민이 DPRK에서 기독교 활동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도록 교육받는다. 인터뷰 대상자의 말에 의하면 불교에 대한 질문은 제기되지 않는다. NSA는 김일성대학의 종교과 학생들을 채용한 후 보안 요원들을 그 곳에 보내 교육을 받도록 한다.

또한 인터뷰 대상자들은 비밀 종교 활동이나 선교 활동을 적발하기 위한 전술에 대해 증언을 하였으며, 여기에는 종교 집단에 대한 침투, 조선족 목사 중에서 정보원을 발굴, “목사”

⁴⁷ 이 인터뷰 대상자는 가짜 탈북자로 위장되어 중국으로 보내졌다.

⁴⁸ 이 인터뷰 대상자는 NSA에서 간첩 교육을 받았다.

또는 “장로”로 가장하는 방법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활동 중 대부분은 중국 연변자치구의 개신교 교회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어느 전 보안 간부의 처는 자신의 남편이 북한에서 중국에서 송환된 기독교 개종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가짜 기도 모임’을 조직했다고 증언하였다.

비밀 종교 활동의 색출을 위해 사용되는 전술에 관한 구체적 응답

인터뷰 대상자 34: “[종교 집단에 대한] 연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째, 북한은 목사를 교육해서 선교 전선에 내보낸다. 둘째, [NSA가] 중국에 침투시킬 정보원으로서 진짜 목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다. 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사가 우리의 정보원 내지 스파이라는 것을 모른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종교 신도들]을 잡을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도들을 잡을 수 없다.”

인터뷰 대상자 35: “많은 수의 북한 주민들이 탈출을 시작하고 [북한에 관한] 정보가 새어나오기 시작하자 NSA는 정보 누출 방지를 위한 조직인 8사단을 창설하였다. 나는 이 새 사단에 소속되어 가짜 북한 탈주자로 위장한 채 중국에 파견되었다. 내 상사는 내게 종교 집단이나 기독교도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정치범들을 [찾아 내라는] 임무를 부여 받았다. NSA는 여전히 북한 탈북난민 중에서 [선교사들을] 색출하기 위해 기독교도로 가장한 스파이들을 보내고 있다.”

III. 북한-중국 국경 지역에서 벌어지는 NSA 및 PSA의 활동

이 보고서를 위해 인터뷰에 응한 전 보안 요원들은 가혹한 심문, 고문 및 구금에 관한 탈북난민들의 증언을 확인해 주고 있으며, 그

중에는 중국에서 남한 사람들과 접촉했거나 개신교로 개종한 것으로 밝혀진 탈북난민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전 요원들의 말에 의하면 송환된 탈북난민들을 대상으로 중국에서 남한 사람을 만났는지 여부 및 종교 집단과 밀접하고 지속적인 연락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다. 보안 요원들은 심문 중에 구타, 위협 및 기타 형태의 잔혹행위가 일상적으로 벌어진다고 말한다. 조사관이 판단하기에 중국에서 종교 집단과 거의 또는 전혀 접촉이 없었다는 확신이 드는 탈북난민들은 PSA로 이송되어 단기 구금된다. 그러나 중국에서 종교 활동 및 외국의 종교 집단과 많은 접촉을 가졌다는 판단이 내려지는 탈북난민들은 NSA로 인계되고 관리소로 보내지며 그 곳에서 고문 및 고된 노동과 같은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한의 보안 요원들이 조선족 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인권 활동과 종교 활동을 구분하고 있다는 증거가 수집되고 있다. 요원들의 말에 의하면 중국에 있는 한국 기독교 교회에 단순히 갔다고 해서 “정치적” 범죄로 간주되지는 않는 것 같다고 한다. 이러한 견해는 최근에 송환된 탈북난민 중 일부의 증언을 뒷받침해 준다. 그들은 남한 사람들 또는 교회와의 관계가 일시적이었고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함으로써 관대한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 NSA 요원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 “만일 [송환된 탈북난민이] 배가 고파 교회에 갔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눈감아 주고 교회에 갔다는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말라고 다짐을 받는다.”

전 보안 기구 간부들의 증언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송환된 탈북난민들이 심문 내지 구금 도중에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상황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송환될 경우 고문과 투옥에 처해지게 되는 중국의 탈북난민들에게 국제적인 보호의 손길이 닿아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이 확인된다.

NSA 와 PSA 의 심문에 관한 구체적 응답

인터뷰 대상자 33: “체포된 종교인들에게 예심 같은 것은 없다. [우리는] 그들을 반혁명분자로 간주한다. 그러한 범죄자가 북한에서 체포되면 심문을 하기 전에 NSA 간부들이 그 사람을 둘러싸고 심하게 차고 때린다. 송환된 탈북난민들은 심문을 받을 때 먼저 중국에서 교회에 간 적이 있는지를 조사받는다. 북한은 종교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 그러나 불교에 대해서는 조사가 실시되지 않는다. 송환된 사람들 중 대부분은 자신들이 식량을 [얻기 위해] 교회에 갔으나 머물렀던 곳은 산 속이었다고 대답한다. 그들은 종교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르는 체 한다. 만일 이 작전이 통하면 그들은 PSA 로 넘겨진다. 송환된 사람들 중 다수가 종교에 대한 언급을 피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러나 [심문 중에] 일단 탄로가 나면 그들은 NSA 로 인계된다. 중국의 북한 주민들은 누가 [정보원인지] 또는 누가 송환될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김정일에 대해 나쁘게 말한다. 송환된 탈북난민들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자백해야 한다. NSA 가 증거 서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뷰 대상자 34: “우리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 보통 ‘[남한 사람]이 돈을 준 적이 있는가?’ 내지 ‘하나님이 선한 존재인가?’와 같은 일반적 질문을 던진다. 만일 그 사람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전문 조사관을 투입한다. 나는 조사관들이 [사람들을 놓아 주거나] 관리소로 보내는 사례를 많이 목격했다. [탈북난민들이 구금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국의 교회 등으로부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송환되거나 체포된 것이고 [서로 잘 알기 때문에] 비밀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제는 중국에 너무 많은 탈북난민들이 있어 [조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만일 [송환된 탈북난민이] 배가 고파 교회에 간 것이라고 주장하면... 우리는 그냥 눈감아 준다.”

인터뷰 대상자 38: “송환된 주민에게 묻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들이 남한의 선교사나 전도사를 만났는지 또는 종교에 대한 접촉 내지 체험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만일 그들이 선교사나 목사를 만났다고 자백하면... 추가 질문 없이 NSA 로 보내지며 그것은 사망 선고나 다름 없다. 그러나 전체 사건 중 종교와 관련이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진실을 가려 내기 위해] 우리는 7-8 번 조사를 한다. 우리는 모든 조사 결과를 비교하고... 수감자가 [자술서에 쓴 정보를] 누락한 경우 어느 것이 진실인지를 찾아 낸다. 이러한 식으로 우리는 그 수감자가 진정 종교를 믿었는지를 알아 낸다. [만일 조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궁금해 하는 부분을 알아 낼 수 없을 경우] 우리는 그 사람을 약 3 개월간 굶기는데,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서로 [일러 대기 시작한다.] [감옥에서] 우리는 콩이 섞인 밥을 큰 숟가락으로 두 개 분량 정도 주는데, 그 성분은 20%는 콩이고 70%는 옥수수이며 10%가 쌀이다. 만일 수감자들이 양호한 행동을 보이면 [우리는] 그들에게 국 한 컵을 주는데 그걸로 적어도 물배는 채울 수 있다. 우리는 물도 충분히 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 장소가 비좁기 때문에 [수감자들은] 두 줄로 앉아야 하며 머리를 드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IV. 국가안보 및 체제유지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는 종교

전 보안 요원의 말에 의하면 식량이나 일자리를 찾아 북한을 떠나는 탈북난민은 더 이상 “자본주의 이념에 물들은 공개 처형되어야 할” 국가의 적 또는 탈주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단지 경제적 동기에 의해 북한을 떠나기로 마음 먹은 송환 탈북난민들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구금된다. 그러나 종교적 신념을 자백하거나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탈북난민들은 “정치범” 또는 “외국 스파이”로 간주된다. 그러한 사람들은 중노동 및 장기 투옥과 같은 가장 잔혹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 개신교의 잠재적 파급은 김일성주의에 대한 이념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특히 위험한 체제 전복 세력 내지는 “다른 사람들 물들일 수 있는 독소”로 간주된다.”⁴⁹

북한 정부는 불교와 샤머니즘을 “미신”의 일종으로 볼 뿐이며 정치적 또는 이념적 위협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보안 요원들은 말한다. 이러한 종교적 전통은 “확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 정부는 불교와 샤머니즘을 “미신”의 일종으로 볼 뿐이며 정치적 또는 이념적 위협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보안 요원들은 말한다. 이러한 종교적 전통은 “확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교와 샤머니즘은 여전히 불법이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샤머니즘 활동은 이제 널리 퍼져 있으며 개인들 사이에서 드러나지 않게 이루어지는 한 정부 관리들도 비공식적으로

⁴⁹ 인터뷰 대상자 38.

목인하고 있다. 불교는 문화 유적지로서 사원을 보존하는 등 계속해서 공식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소에서도 종교 활동이 제약 없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다. 반면 개신교는 암묵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보안상의 위협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 보고서를 위해 인터뷰에 응한 전 보안 요원들은 전부 남한과 미국의 정보 기구가 북한의 이익을 파괴하고 북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개신교를 퍼뜨리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고 말했다. 북음의 전파를 위해 중국에서 돌아 온 북한 사람들은 모두 “침략의 앞잡이이자 스파이”로 간주된다.

개신교의 위협은 그 발생 원천과 직접 관계가 있다. 따라서 개신교나 카톨릭의 “해방전” 형식을 따르는 신도의 가족들은 남한 또는 중국의 선교사에 의해 중국이나 북한에서 개종된 사람들에 비해 보다 가벼운 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전 북한 보안 기구 요원들로부터의 구체적 응답

인터뷰 대상자 33: “종교인들에 대한 처벌은 그 사람의 현재 활동, 즉 적극적이냐 숨어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 사람이 미래에 종교를 믿을 계획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수 세대에 걸쳐 신앙을 가져 온 사람들은 NSA 요원에게 그 사실이 적발될 경우 처벌을 받으나, 처벌은 그리 무겁지 않다. 가장 무거운 처벌은 [새로이 종교] 활동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내려진다. 즉, 중국으로부터 성경을 반입한 사람들 및 중국에서 북한 탈북난민을 지원하는 기독교도들이 그러한 대상에 해당한다.

“북한 당국은 불교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들이 말하는 종교란 카톨릭이나 불교보다는 주로 개신교를 의미한다. 나는 점쟁이에게 여러 번 갔었다. 북한에는 나이 많은

여성 점쟁이들이 많이 있다. 내가 북한에 있을 때 카톨릭 교도나 불교도를 처형한 사건은 없었다. 또 많은 절과 유교 사당과 토속 사당이 있다. 똑 같은 것을 그 안에 바치는 사람은 미신을 믿는 것으로 간주되어 매를 맞는다. 심지어 불교 사원조차 미신으로 간주된다. 이처럼 북한 사람들은 불교를 종교와 다른 무엇이라고 생각한다.”

“수색의 대상은 개신교이다. 북한 탈주자 중 누구도 송환 후에 ‘불교 사원에 갔었는가?’라는 질문을 받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NSA 당국의 사고방식이며, 나 자신도 NSA 에 있을 때 불교도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쓴 바 없다. 처벌의 대상이 되는 종교는 개신교가 유일한데, 그 이유는 미국과 관계되어 있고... 스파이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은 기독교를 전파하였고 그들이 바로 우리 나라를 침략하려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 자는 스파이이다. 스파이는 처형되어야 한다.”

“기독교도에 대한 처벌의 강도는 점쟁이의 경우와 다르다. 비록 [당국은] 점쟁이를 규제 내지 조사하지만 그냥 ‘점을 치러 몇 번이나 갔었는가?’라고 묻고 며칠간 구금하는 정도이다. 그들은 PSA 로 인계조차 되지 않는다. 일부는 고객으로서 점집에 가기도 한다. 당의 고위 간부들도 비밀리에 그 곳에 간다.”

인터뷰 대상자 34: “우리는 배가 고파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목표는 남한으로 탈출하려는 사람들과 종교 신도가 되어 북한으로 되돌아오는 사람들이다. 개신교 조직은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정치적 범죄자 내지 반역자로 간주된다.”

“불교는 정치와 관련이 없다. 불교 단체들은 종교를 퍼뜨리지 않으며 미신으로 간주되므로 불교도가 적발되면 우리는 그들을 약

6개월간의 강제 노동에 처한다. 우리는 불교를 그냥 미신이라 본다.”

**“김정일은 미국보다도 자국 국민을 더 두려워한다.
북한의 위대한 신은 김정일인데,
만일 그것이 진짜 신으로 바뀐다면 사람들이
동요할 수 있다.”**

“불교에 관해 말하자면 승려들도 사실 당원들이다. 그들은 부처님에게 기원을 드리는 모습을 시연하며, 자신의 임무를 잘 해 내면 보수를 두둑이 받기 때문에 열성이 높다. 내가 [승려인] 친구를 방문했을 때 내가 나가서 술 한잔 하자고 하자 그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외국인 방문객이 떠나고 행사가 끝나자 그는 술집으로 달려 가 마시기 시작했다. 또한 사람들이 진실로 믿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NSA 도 그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못 하는데, 그 이유는 그 곳을 방문하는 외국인과 남한 사람들이 약간의 돈을 [승려들에게] 주면 그 중 일부가 결국 우리에게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외국 담배 같은 것을 사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일도 없다고 보고를 한다.”

“알다시피 무엇보다도 천도교는 한국의 독립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김일성 또한 천도교로부터 많은 이득을 보았다. 항일운동 시절에 김일성은 천도교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았고, 또한 천도교가 사회에 그 영향력을 전파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 기본적으로 천도교의 정신은 애국이며 그들은 우리 자신의 문화를 소중히 하라고 가르친다. 그런 마당에 왜 우리가 기독교나 카톨릭과 같이 서양에서 온 것들을 믿고자 하겠는가?”

인터뷰 대상자 35: “2001년에 김정일은 ‘관용적 정치 정책’이란 것을 발표했으며, ‘배고픔 때문에 중국으로 간 사람들은 반역자가 아니다’라는 것이 정책의 골자였다. 탈북난민들은 [송환 이후] 수개월간의 조사와 구금을 받은 후 석방되도록 되어 있었다. 그 정책이 나온 이유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탈출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2003년에 2개월간 구금되었던 기독교인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막 석방되기 직전이었는데, 그 때 집단 내의 [누군가가] [당국에] 신고를 했다. 결국 그들은 함경남도 청진의 수용소에서 NSA에 의해 끌려가고 말았다.”

“기독교도들은 스파이로 간주된다. 기독교인을 만나는 행위는 남한의 정보 장교를 만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스파이와 기독교인은 관리소로 보내진다. 그들은 똑같이 대우를 받는다. 기독교도이거나 기독교도를 만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덕으로 보내져 4년에서 평생에 이르는 수감 판결을 받는다. 개신교를 단순히 믿는데 그치지 않고 전파하는 사람들은 무기형에 처해진다.”

“서안에서 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곳에는 약 70명의 북한 탈북난민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어느 조선족이 중국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체포되었다. 북한 국경 경찰은 연변의 우진 군부대를 호출했다. 그들은 기독교도들을 열차에 실어 북한으로 보냈다. 체포된 사람들은 구타를 당하는 와중에도 계속 기도를 했다. 그 집단의 지도자와 가장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은 관리소로 보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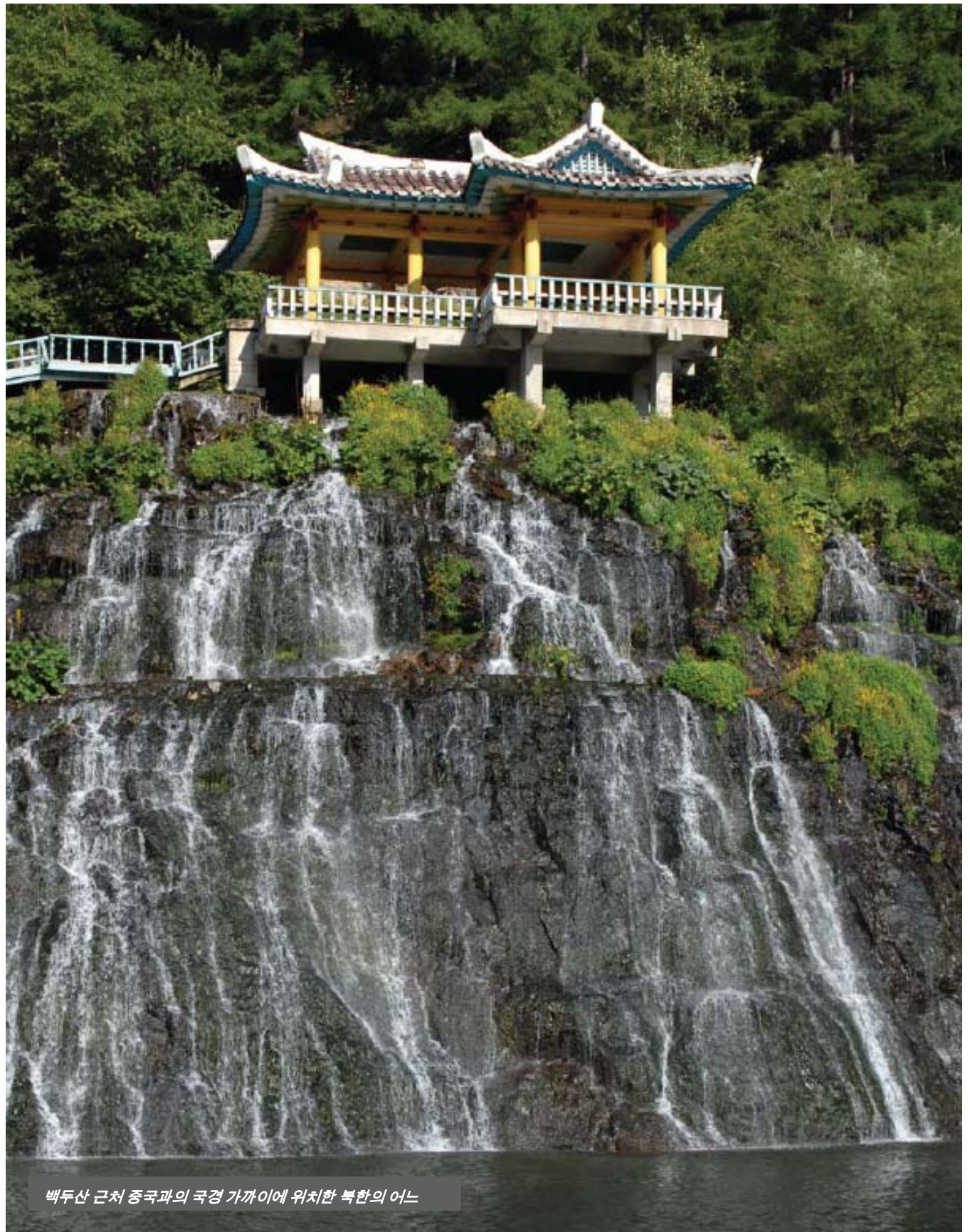
인터뷰 대상자 36: “기독교는 유일사상체계에 반하기 때문에 불교에 비해 더 심한 억압을 받았다. 김일성은 신이며, 진짜 신으로

교체되어서는 안 된다. [개신교]를 믿는 것은 스파이 활동과 같다... 종교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될 수 있는 독소이다.”

“불교에 관해 말하자면 북한에 절이 있다. 많은 사람이 집에 초와 물그릇을 준비하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하며, 누구도 그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다. [당국은] 때로 미신 타파 운동을 벌이지만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없고, 심지어는 그들 중에도 다수가 점쟁이를 찾아 간다. 많은 탈북난민들은 돈을 준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기 때문에 북한에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만일 잡히면 관리소로 보내진다. 당국은 최근 들어 정치범을 거의 처형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북한의 인권이 전세계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대신 그들은 살기 힘든 내륙의 산악 지역으로 강제 이주된다.”

인터뷰 대상자 37: “기독교만 빼고 다른 것들은 다 허용된다.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잡히는 사람은 외부 세력의 영향을 북한에 유입한 죄로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잡히는 사람은 앞날이 암울하다 할 수 있다. [예배 행위를 하다가] 잡힌 사람은 관리소로 보내지며... 전 가족이 사라져 버릴 수 있다.”

인터뷰 대상자 38: “불교는 약간 용인된다. 불교도들은 종교를 자기들끼리 지켜 나가는 경향이 있으나 기독교는 불교와 달리 빨리 퍼진다. [기독교도들은] 혼자 기도하지 않으며 여러 명이 모여서 하고 따라서 빨리 확산된다. 북한의 위대한 신은 김정일인데, 만일 그가 진짜 신으로 교체된다면 사람들이 동요할 수 있다.”



백두산 근처 중국과의 국경 가까이에 위치한 북한의 어느

북한 탈북난민에 대한 인터뷰 방법론 및 관련 정보 (METHODOLOGY FOR AND INFORMATION ON THE NORTH KOREAN REFUGEE INTERVIEWS)

I. 인터뷰 질문

위원회는 북한에서 사고, 양심 및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가 존중되는지를 몇 가지 측면에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탈북 주민 72명을 대상으로 일련의 질문을 하였다. 첫 번째 질문은 짧은 개방형 질문이었다. 북한에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어째서 그렇다고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가’였다.

그 다음으로는 (1) 승인 또는 허가된 종교 시설, 예배 장소 또는 종교 활동을 본 적이 있는지, (2) 불교의 불경 또는 기독교의 성서 문구와 같은 종교 문헌을 보았는지, (3) 신부, 목사 또는 승려와 같은 종교인을 보았는지에 대한 일련의 질문이 이어졌다. 또한 각종 종교와 관련된 축일에 대해 알고 있는지 그리고 중국 및 한국에 가기 전에 종교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시되었다. 두 번째 질문 단계에서는 북한 정부의 반종교 선전(교육 시스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등의 매스미디어 또는 그 외의 방법을 이용한 선전 포함)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이 추가되었다.

북한의 헌법은 주체사상 또는 김일성주의를 국가의 공식 이념이라 선언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관찰자가 이 나라의 이념은 그 자체로 매우 종교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공식 “이념 체계”인 주체사상/김일성주의의 실행 및 선전에 관한 일련의 질문이 제시되었다. 또한

대안적 사고 및 이념 체계에 관한 질문이 제시되었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지하”, 불법, 비밀 또는 무허가 종교 활동을 목격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목격했다면 어떠한 종류였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끝으로 인터뷰 대상자들은 정부의 공식적 승인 없이 중국에 체류하던 동안 종교와 접촉한 적이 있었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또한 중국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을 때 그러한 접촉으로 인해 어떠한 결과가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이 제기되었다.

II. 첫 번째 및 두 번째 인터뷰의 개요 (72명의 북한 주민 대상)

2003년 이전에 DPRK를 떠난 40명의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인터뷰 단계

첫 번째 인터뷰에 응한 40명의 북한 주민은 남녀의 비율이 거의 같았다. 그러나 성별과 응답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인터뷰 대상자들의 이전 직업으로는 주부, 상인(소규모 기업 운영자), 교사, 학생, 공장 노동자, 군인, 경찰, 건설 노동자, 사무직 노동자 그리고 하급 국가 관리 등이 있었다. 성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원회의 첫 번째 보고서에 포함된 인터뷰 대상자의 응답은 이전에 가졌던 직업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응답자 중 한 명은 73세였고, 네 명은 60대, 그리고 한 명은 20살이었으며, 기타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30대 초 중반이었다. 인터뷰 대상자 중 한 명은 1989년에 북한을 탈출했으며, 두 명은 1996년에, 3명은 1997년에, 그리고 3명은 2003년에 북한을 탈출하였다. 나머지 인터뷰 대상자들은 1998-2001년 사이에 북한을 떠났다. 역시 인터뷰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연령 또는 탈북 연도에 따른 변동은 거의 또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⁵⁰

약 40명의 북한 주민이 2003년 이전에 북한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견해를 제시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비록 북한 정부가 2002년과 2004년에 경제적 조정을 실시하고 형법을 개정하기는 했으나, 이러한 변화로 인해 사고, 양심 및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에 관한 정부의 정책에 차이가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 당국은 지난 10년간 북한의 종교적 자유 및 종교적 행사에 대해 동일한 주장을 해 왔다.

인터뷰 대상자의 직접 체험이 응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인터뷰 대상자가 북한의 수도인 평양에서 지낸 적이 있는지 여부이다.⁵¹ 평양에 있는 3개의 공식 교회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으며,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한 명은 그 교회들이 전적으로 외국인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한 명은 그 교회들이 외국인과의 연락을 위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세 번째 사람은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석해 본 적은 없었지만 그 교회들이 “진짜 교회”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었다.

⁵⁰ 몇 명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두 번 이상 북한을 탈출했다. 이들은 중국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강제 송환되었다. 강제 송환 후 이들에 대한 북한 경찰 당국의 처리에 관한 내용은 위원회의 첫 번째 보고서 제 4장에 설명되어 있다. 현재의 집계 수치는 서울로의 진짜 망명에 성공하기 전에 북한으로부터 두 번 이상 탈출했던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

⁵¹ 북한 국내에서의 여행은 제한되어 있으며, 수도 평양에서의 거주 자격은 정치 엘리트 및 특권층 노동자에게만 주어진다.

2003년 이후에 DPRK를 떠난 전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인터뷰 단계

두 번째 인터뷰 단계는 대부분 2003년 이후에 북한을 탈출한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질문지는 첫 번째 단계의 것과 매우 유사했으며, 불교 활동, 송환 탈북난민에 대한 심문 그리고 북한 정부가 교육 시스템과 매스미디어(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 등)를 통해 반종교 선전을 수행하는 방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이 추가되었다.

두 번째 인터뷰에 응한 모든 사람들은 1999년에 탈북한 두 명을 제외하고 2003년 이후에 북한을 떠났다. 두 명의 인터뷰 대상자는 2006년에 북한을 떠났고, 5명은 2005년에, 16명은 2004년에, 그리고 7명은 2003년에 북한을 떠났다. 응답자 중 4명은 50대였고, 5명은 40대였으며, 또 다른 5명은 20대였다. 나머지는 모두 30대였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남녀 비율이 거의 비슷했다. 그러나 첫 번째 집단에서와 마찬가지로 응답과 성별 사이에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었다. 인터뷰 대상자의 직업은 주부, 교사, 대학생, 고등학생, 사무직 노동자, 트럭운전기사, 운전기사, 군인, 목수, 직업훈련원, 건설 노동자, 피교육생, 그리고 몇 명의 무직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첫 번째 인터뷰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보고서를 위한 인터뷰 대상자들의 응답은 이전의 직업과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 번에도 마찬가지로, 제시된 응답에서 연령 또는 탈북 연도에 따른 변동이 발견되지 않았다. 4명의 응답자(인터뷰 대상자 43, 48, 65, 69)는 2003년 이전에 북한을 탈출했으나 2003년 다시 탈출하기 전에 북한으로 송환되었다.

두 번째 인터뷰의 대상자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보였는데, 그것은 중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매우 짧았다는 것이다. 탈북난민들이

중국에서 머문 기간은 보통 3-4년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인터뷰 집단의 경우에는 남한으로의 탈출에 성공하기까지 중국에 잠깐 머문 것이 고작이었다.

최근 탈북한 사람들의 중국 내 체류 기간이 짧았던 것은 남한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친척 또는 친구들로부터 사전에 제공받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 분명하며, 이들 중 대부분은 이전의 탈북자들보다 준비가 더 잘 된 상태에서 북한을 떠날 수 있었다. 10명의

응답자는 중국으로부터 강제 송환되었고 (인터뷰 대상자 43, 47, 48, 54, 56, 63, 65, 68, 69, 70), 두 명은 1999년에 탈북했으며, 나머지는 남한으로 “직수입”되었다. 그들이 중국에 머물렀던 기간은 당연히 짧았으며, 때로는 수 개월도 채 되지 않아 제삼국으로 떠나기도 했다. 이들에게는 이미 남한으로의 탈출에 성공한 친척과 친구들로부터 지원과 정보가 제공되고 있었다.

조사원 약력 (RESEARCHER BIOGRAPHIES)

원재천

원재천은 남한의 한동국제법률대학원 교수이자 학자로서,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원 교수는 미국 형법 및 절차법, 국제인권법, 그리고 북한 및 국제인권법을 강의하고 있다. 학계로 진출하기 전에는 한국 국방부 법률자문실에서 국제법 전문가로 활동하였고, 이어 뉴욕 브루클린의 킹스카운티 지방검찰청 부검사로 있으면서 형사사건을 주로 담당하였다. 원 교수는 뉴욕 및 뉴저지 법률협회 회원이다.

원 교수는 International Campaign of Citizens의 북한인권시민연합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위원 겸 이사로 활동 중이다. 원 교수는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아시아의 각종 인권 문제에 대해 구두 조언을 제공하였으며, 현재 대한민국 서울의 아시아인권센터에서 인권교육담당이사 (Director of Human Rights Education) 직을 맡고 있다. 원 교수는 유엔 탈북난민고등판무관실 (UNHCR)을 대상으로 북한 탈북난민 문제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다. 원 교수는 한국 대검찰청을 상대로 형사절차법의 개선에 관한 자문을 제공한다. 원 교수는 대한민국 법무부 국제형사법자문위원회 (International Criminal Law Advisory Committee) 회원이며 대검찰청 회원이다.

김병로

김병로는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의 연구부교수이며, 북한 및 한국 종교 연구 분야에서 손꼽히는 학자이다. 김 교수는 서울 성균관대학교에서 인문학사학위를 받았고, 인디애나 주립대에서 사회학 석사학위를, 그리고 Rutgers University에서 사회학 Ph.D 학위를 취득하였다. 1993년부터 2003년까지 김 교수는 통일연구원 (KINU) 북한연구분야 수석연구원 겸 이사로 재직하였다. 그 후 김 교수는 대한민국의 아신대에서 북한학 교수로 재직하였다. 김 교수는 평양을 수 차례 방문하였으며, 중국의 북한 탈북난민에 대해 폭 넓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평양에 세워져 있는 어느

위원회 소개 (ABOUT THE COMMISSION)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IRFA의 규정 및 세계인권선언 및 관련 국제 협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해외에서 벌어지는 사고, 양심 및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에 대한 권리 침해를 감시하고 대통령, 국무부 및 의회에 독립적인 정책 권고 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8년 IRFA(국제종교자유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전세계에서 벌어지는 종교적 자유에 대한 침해 사실 및 상황에 기초하여 정책 권고 사항을 검토 및 작성하는 것을 유일한 임무로 하는 세계 최초의 정부 위원회이다. 위원회는 자문을 제공하고 책임을 홍보함으로써 국제적 차원에서 종교적 자유를 수호한다는 우리의 의무가 미국의 대외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신뢰성 있는 정보와 분석 결과 그리고 세심하면서 구체적인 정책 권고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미 정부와 미국 국민이 전세계적 차원에서 상기한 기본적 자유를 수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구를 제공한다.

IRFA의 초안을 담당한 주 집필자의 말에 의하면 위원회는 “대통령과 의회가 독립적 권고 사항을 제시 받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국제적인 종교의 자유 수호라는 원칙에 미달하는 미국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⁵²

위원회는 1999년 5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주 정부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행정부로부터도 독립된 기구이다.

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위원 중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그 외에 상원 의장 대행이 3명을 지명하며, 그 중 두 명은 상원 소수당 당수의 추천에 의해 지명된다. 또 다른 3명은 하원의장이 지명하며, 그 중 두 명은 하원의 소수당 당수의 추천에 의해 지명된다. 결국 이 지명 시스템은 백악관의 집권당 당수가 5명의 의결권 회원을 지명하고, 야당의 당수가 4명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는 셈이다. 끝으로 국제종교자유 담당 순회대사가 직권상의 무의결권 위원이 된다.

위원회는 대외 문제, 인권, 종교적 자유 및 국제법에 관한 풍부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원의 구성 면에서도 미국의 종교적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소정의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 국무부의 *국가별인권실태보고서(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및 위원회의 *국제종교자유보고서(Annual Report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에 제시된 바와 같이 종교적 자유의 침해에 관한 정보를 검토한다. 또한 위원회는 국무부 및 국가안전보장회의, 미 대사관 및 외국 정부의 당국자, 종교 공동체 및 기관의 대표, 인권 단체, 기타 비정부 기구, 학계 및 기타 정책 전문가들과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한다. 위원회는 종교적 자유의 실태를 직접

⁵² 의회 기록, S12999, 1998년 11월 12일.

점검하기 위해 외국을 방문한다. 또한 위원회는 공청회, 브리핑 및 원탁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조지 부시 대통령 및 국무부 및 국방자문위원을 포함한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조사 결과와 권고 사항을 논의해 왔다. 또한 위원회는 의회 의원, 미 대사관 및 국제 단체의 당국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실시한다. 그 외에도 위원회는 의회에서 증언을 하고, 미국 대표단과 함께 국제 회의와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외교부 당국자 및 기타 미국 정부 당국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의회 당국자 및 직원을 대상으로 관리 및 입법 추진 활동에 관한 자문을 제공한다.

위원회는 문제를 제기하고 조사 결과와 권고 사항을 공청회, 기자회견, 그리고 원탁 회의 및 브리핑, 간행물, 웹 사이트 및 미디어 아웃리치 등의 기타 공공 행사를 통해 미국 국민에게 공개한다. 이번 보고 기간 동안 위원회의 활동은 *Christian Science Monitor*,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Miami Herald*, *Los Angeles Times*, *New York Times*, *The Washington Post*, *The Washington Times*, the wires, National Public Radio 및 PBS 를 비롯한 수많은 매체에 의해 취재되었다.

위원들은 미국 전역에 거주하며, 위원회는 미국인들에게 위원회의 활동을 알리기 위한 공청회, 공개 회담 및 기타 각종 활동을 위해 전세계를 여행한다. 위원회의 작업은 연중 내내 수행되나, 위원회는 매년 5월에 대통령, 국무장관 및 의회를 위한 정책 권고 사항이 담긴 연차 보고서를 작성한다.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

**800 NORTH CAPITOL STREET, N.W. SUITE 790
WASHINGTON, D.C. 20002
WWW.USCIRF.GOV**

전화: 202-523-3240 팩스: 202-523-5020